



후 반 기
구 역 자 도 자
수 련 회

강사 김경진 담임목사

일시 8월 25일(금) 10:30

장소 소망교회 본당



소망교회

THE SOMANG PRESBYTERIAN CHURCH

CONTENTS

August 2023

하늘을 여는 기도	아버지께로	2
깊어지는 영성	도우심을 붙잡을 때 김경진	4
목상에 붙임	연결성에 대하여 유진 피터슨	6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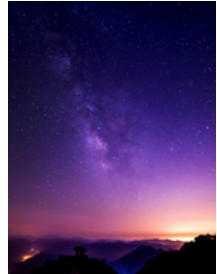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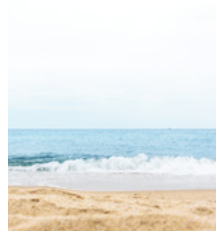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10
말씀 개관		12
8월 본문	역대상·욥기	16
	1주(8/7) 2주(8/14) 3주(8/21) 4주(8/28)	

FAITH

땅끝에서 온 편지	앞서지 않고 따르기 김정진·서지현·MK김하나	42
소망사랑방	외길 중보 기도회에서 방수희	88
전도서산책	해 아래의 인생 이순기	128
공간공감	오정동 선교사촌 인돈하우스 홍성찬	168
이달의 기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198

COMMUNICATION

문화읽기	<보이즈 어프레이드>를 통해 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시선 황영미	200
소망마당	여름 단비를 기대하며 교회학교	204
성지스토리	땅이 낸 고백 1 이해옥·김완진	208
그림묵상	가나의 혼인 잔치 이호연	212
예배자의 길	8월 우리의 고백 안진현·이영주·최순옥	214
뿌리를 찾아서	헤른후트,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박경수·이근복	218
가정예배 응답노트	가정예배는 가족모임이 아니라 예배시간입니다 신형섭	222
돌봄의 창	하나님께서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신현호	226
소망뉴스		230



아버지께로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작은 이익 탐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심을 저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우릴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께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도우심을 붙잡을 때

글 김경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떠나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위험했습니다. 도적이 출몰하거나 정착한 땅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찾아 수많은 곳을 이동하며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비슷합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따라 움직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는 스스로 순례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리브가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후에는 브엘라헤로이에 잠시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흉년이 들자 그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이동이자 모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랄 지역은 과거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문 장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살고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기근이 들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곧 ‘그랄 지역’에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창 26:2). 그러자 이삭이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나름대로 생명을 잃지 않으려는 방편을 세웁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아비멜렉 왕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행히도 두 사람을 보호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이 그만 거부가 됩니다. 본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사도 잘되었나 봅니다. 곡식을 먹은 가축이 잘 자라자 부유해집니다. 부자가 된 이삭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면서 아브라함 때 종들이 판 우물을 훔으로 메꾸기 시작합니다(창 26:14-15). 이삭 편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했겠죠. 원통함을 풀고자 아비멜렉을 찾아가보지만 떠나라는 추

방 명령만이 돌아올 뿐입니다(창 26:16). 사실상 아버지 때부터 그랄 지역에 정착하고자 한 모든 과정이 허무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랄 지역에 머물라고 명령하셨기에 멀리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골짜기에 들어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곳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이 '에섹'입니다. 다음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파 보지만 역시나 다툼이 일어납니다. '대적하다'는 뜻을 가진 '잇나'로 명명됩니다. 결국 이삭이 자리를 옮기고 새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때에 더 이상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고, '넓은 곳'의 우물인 '르호봇'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얻게 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온화한 성품을 꼽습니다. 물론 그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쫓기고 쫓기면서도 싸움을 싫어하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런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넓은 곳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 이삭은 르호봇에서 올라가 브엘세바 지역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군사령관을 이끌고 오더니 뜻밖에도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강성해진 이삭을 보면서 이제는 시기가 아니라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삭은 제법 부강해진 세력으로 그랄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평화 조약을 받아들이고 체결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맹세의 우물'이요, '일곱 우물'이라 이름 지어진 '브엘세바'가 솟아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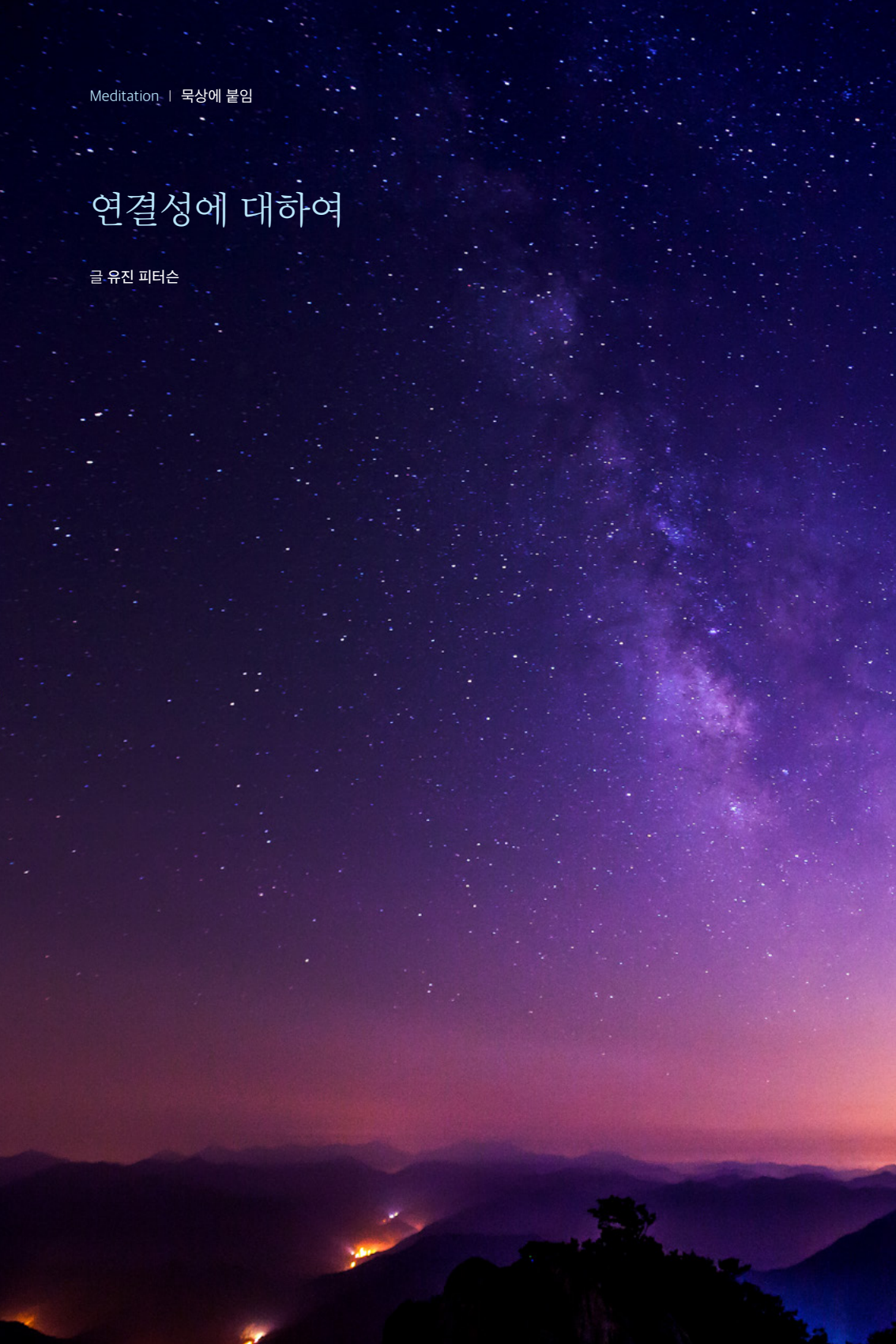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삭의 이야기 전과 후에 속고 속이는 인간의 군상을 보여 줍니다. 앞장에는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며 팔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은 야곱이 나옵니다. 뒷장에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인간의 현실 속에서 쫓기고 쫓기는 이삭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한때는 아비멜렉 앞에서 생존을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삭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이고 쫓기는 인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싸우기보다 평화를 선택했고, 이동하는 곳마다 새로운 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평화를 창조하고 마침내 지경을 넓혀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Meditation | 묵상에 붙임

연결성에 대하여

글 유진 피터슨





연결성의 발견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흥분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개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숨겨진 비밀이나 감추어진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삶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은 중요했습니다.

믿음은 원인과 결과,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러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가, 단절되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내용과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내용은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직장 경험과 예배의 경험은 연결되어 있는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와 변호사의 자문받기,

주가지수 읽기와 성경 읽기,

교회에서 찬송가 펼치기와

차량 라디오 제어손잡이 돌리기 사이의 연결성을 발견하는 일은

여전히 신납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진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유진 피터슨 『잘 산다는 것』(북 있는 사람, 2022) 203쪽.

WORD

역대상 · 욕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역대상 9:10-16

필독일
역대하 26:16-18

10 제사장 중에서는 아사야와 예후야임과 아산아
Of the priests: Jehoiada, Jehonathan, Azariah

11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야이니 그는 빌가드의 아들이요
Asahiah son of Bilkiah, the son of Meshullam, the son of Zebad, the son of Benoni, the son of Ashub,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house of God.

12 또 아다야이니 그는 예로렐의 아들이요 막스홀의 손자요 말
Adahiah son of Jerahmeel, the son of Meshullam, the son of Zebad, the son of Benoni, the son of Ashub,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house of God.

13 또 그의 형제들이니 훌의 아들인 우두야와 하나님의 성
The priests, who were heads of families, ministered 1700. They were able men, responsible for ministering in the house of God.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외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며 나를 성찰하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인 《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말씀 안에서

아래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여 답안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족보의 배경이 포로기 이후로 이동합니다(30-)

[illegible]

2. 귀중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주요 가문이 소개됩니다(14-16).

[illegible]

적용 | 앞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보세요

1. 11월의 달은 자와 13일의 수요일 일하는 자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직음 해 볼 점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2. '이웃에게서 돌아선다'는 이름을 가진 '스마일'의 등장과 함께 세위 후손 족보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보십시오.

1

 열심과 함께 세상 속으로

목상하기 ! 마음에 외당은 구절을 필사하여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illegible]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 47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감정과 칭찬

19

역대상(9~19장)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긴 레위인이 소개된다(9:10-34).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하나님 또한 상상하기 어렵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다.

시대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 자들이 소개되더니 뜻밖에도 사울의 족보가 등장한다. 역대기 저자는 서둘러 패망한 사울 집안 소식을 알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추대받으며 왕으로 등극한 다윗을 끌어당긴다(11장). 그 사이에서 질문이 떠오른다. '사울의 길로 갈 것이냐,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그런데 유독 한 단어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돌아와' '돌아와' ... 사울을 따른 추종자들이 다윗에게로 돌아간다. 성경은 그들을 '용사'라고 말하며 제법 전열을 갖추는 다윗의 세력을 암시한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12:22) 문득 숨겨진 역사적 상황이 읽혀진다. '큰' 군대란 곧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큰' 구원을 의미한다(11:14). 백성과 나라가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셈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법도 하다. 그러나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다윗 곁에 사람들이 몰려들며 함께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다 '한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한다(12:38). 그러나 다윗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는 아직이었다.

불현듯 매서운 진노가 내려진다(13:10). 소에 실린 여호와와 궤를 보며 다윗과 이스라엘 무리가 한창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셨다. 레위인이 궤를 매지 않고 이방 풍습을 따랐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나 심판의 불길 속에서 날카롭게 질문하셨다. '너희가 진정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왕이 된 다윗의 기쁨인지, 왕을 되찾은 백성의 기쁨인지. 눈에 보이는 궤가 기쁨인지, 보이지는 않으나 영원하신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이 기쁨인지. 온갖 감정이 얹히고설킨 자리에서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신다. 이제는 다윗 너머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명령하신다.

석 달, 오벰에돔 집에 하나님의 궤가 안치된 동안에 왕과 백성이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한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맞아드릴 준비가 차 오른다. 마침내 온 무리가 움직이고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쁘게 찾아오신다(16:1-2). 어느 날에 다윗이 생각한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와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17:1)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잠이 든 그 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다. '너의 집을 축복하는 이가 누구더냐.' '너의 주인이 누구더냐.' 가문의 축복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의 왕조로부터 세워질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

을!(16:43). 힘과 명예에 기반하는 나라가 아닌 영원하신 약속에 기초하는 나라가 꿈꾸어진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 그 밤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자 다윗이 마음을 돌이킨다.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17:25) 그의 간구와 함께 성경은 이후 승전 기록을 전해 준다(18-19장).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걸음이 힘차다. 그렇다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하나님과 백성, 종과 주인의 관계가 세워지는 자리에는 억압과 횡포가 아닌 소망과 미래가 꿈틀거린다.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5일 주간		
1(화)	역대상 9:10~16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과 레위인
2(수)	9:17~34	회막 문지기와 그 외 역할로 섬긴 레위인
3(목)	9:35~10:6	사울의 족보
4(금)	10:7~14	패망한 사울 집안
5(토)	욥기 11:1~20	소발의 첫 번째 말
10~15일 주간		
7(월)	욥기 12:1~25	소발을 향한 욥의 대답 1
8(화)	역대상 11:1~9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다윗
9(수)	11:10~19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1
10(목)	11:20~47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2
11(금)	12:1~22	다윗을 도운 다양한 지파의 용사들
12(토)	욥기 13:1~28	소발을 향한 욥의 대답 2
7~22일 주간		
14(월)	욥기 14:1~22	욥의 탄원 기도
15(화)	역대상 12:23~40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는 군사들
16(수)	13:1~14	여호와의 궤 운반 사건
17(목)	14:1~17	다윗과 블레셋 간의 전투
18(금)	15:1~15	궤를 옮길 준비에 들어가는 다윗과 이스라엘
19(토)	욥기 15:1~16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 1
24~29일 주간		
21(월)	욥기 15:17~35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 2
22(화)	역대상 15:16~16:3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여호와의 궤
23(수)	16:4~36	이스라엘 안에 울려 퍼지는 감사 찬양
24(목)	16:37~43	기브온 산당을 찾은 다윗
25(금)	17:1~15	나단을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말씀
26(토)	욥기 16:1~22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대답 1
28~31일 주간		
28(월)	욥기 17:1~16	엘리바스를 향한 욥의 대답 2
29(화)	역대상 17:16~27	다윗의 감사 기도
30(수)	18:1~17	다윗의 승전 기록 1
31(목)	19:1~19	다윗의 승전 기록 2

8

August 2023

SUN

MON

TUE

WED

1

2

6

3

8

9

13

10

15

16

권사회 월례회

20

17

22

23

27

28

29

30

화요조찬 ·

성인성서연구(화요반) 개강

THU	FRI	SAT
3	4	5
10	11	12
17	18	19
24	25 후반기 구역지도자 수련회	26
31 성인성서연구(목요반) 개강		



말씀 속으로

10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아립과 야긴과

Of the priests: Jedaiah; Jehoiarib; Jakin;

11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옏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Azariah son of Hilkiah, the son of Meshullam, the son of Zadok, the son of Meraioth, the son of Ahitub, the official in charge of the house of God;

12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홀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새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므술람의 증손이요 므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Adaiah son of Jeroham, the son of Pashhur, the son of Malkijah; and Maasai son of Adiel, the son of Jahzerah, the son of Meshullam, the son of Meshillemith, the son of Immer.

13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천칠백육십 명이더라

The priests, who were heads of families, numbered 1,760. They were able men, responsible for ministering in the house of God.

14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Of the Levites: Shemaiah son of Hasshub, the son of Azrikam, the son of Hashabiah, a Merarite;

15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맛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Bakbakkar, Heresh, Galal and Mattaniah son of Mica, the son of Zicri, the son of Asaph;

16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Obadiah son of Shemaiah, the son of Galal, the son of Jeduthun; and Berekiah son of Asa, the son of Elkanah, who lived in the villages of the Netophathites.

9:16 느도바 사람의 마을

‘느도바’는 약사들이 모여 살던 성읍으로 추정된다(느 12:28).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족보의 배경이 포로기 이후로 이동합니다(10~13).

1-8장이 포로기 이전 시대를 주배경으로 삼는다면, 9장은 포로기 이후 시대를 다룹니다. 성경은 변화된 시작점을 알리고자 바벨론에서 돌아와 고향에 처음 거주한 자들의 명단을 밝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9:2). 성전과 관련한 자들이 필두에서 있는 점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의 회복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을 언급된 세 부류의 사람 중 제사장 가문을 소개합니다. 그들 중에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아사랴, 아다야, 그리고 마아새를 포함한 제사장 가문의 주요 우두머리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한편, 13절에 기록된 제사장 숫자가 느헤미야 11장에 삽입된 족보의 숫자보다 많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다음의 입장을 보입니다. 먼저는 흐르는 세월 속에도 성전을 섬기고자 한 제사장 가문의 열망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는 맡겨진 임무를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은 자도 존재하였는데, 그들이 포함되어 계수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는 표현과 달리(11절),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구절이 근거로 내세워집니다(13절).

2.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주요 가문이 소개됩니다(14~16).

역대상 6장에 기록된 레위 자손의 긴 족보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줍니다.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하나 역으로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섬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제사장으로 섬긴 레위인을 열거한 이후에 다른 형태로 예배를 섬긴 레위 후손을 소개합니다. 이때에 흥미롭게도 레위의 세 번째 아들 ‘므라리’가 언급되며 그의 후손 ‘스마야’가 등장합니다(14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등장은 첫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가졌던 근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즉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였습니다. 둘째, 스마야의 등장은 이후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는 행위를 기준으로 사울과 다윗을 구분하는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게 합니다(10~11장). 스마야 다음으로 나온 아삽의 증손과 여두둔의 증손은 찬송으로 예배를 섬긴 레위 후손입니다(15~16절). ‘아삽’, ‘여두둔’은 다윗 시대 성전 찬양단을 지도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 11절의 ‘맡은 자’와 13절의 ‘수행할 힘 있는 자’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해 볼 점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2.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이름을 가진 ‘스마야’의 등장과 함께 레위 후손 족보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6:7~8 ⁷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⁸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상 9:17~34

오늘의 찬송 32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말씀 속으로

- 17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The gatekeepers: Shallum, Akkub, Talmon, Ahiman and their brothers, Shallum their chief

- 18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
기이며

being stationed at the King's Gate on the east, up to the present time. These were the gatekeepers belonging to the camp of the Levites,

- 19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
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
켰으며

Shallum son of Kore, the son of Ebiasaph, the son of Korah, and his fellow gatekeepers from his family (the Korahites) were responsible for guarding the thresholds of the Tent just as their fathers had been responsible for guarding the entrance to the dwelling of the LORD.

- 20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In earlier times Phinehas son of Eleazar was in charge of the gatekeepers, and the LORD was with him.

21 브셀레마의 아들 스가라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다

Zechariah son of Meshelemiah was the gatekeeper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22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이백열두 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Altogether, those chosen to be gatekeepers at the thresholds numbered 212. They were registered by genealogy in their villages. The gatekeepers had been assigned to their positions of trust by David and Samuel the seer.

23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차를 좇아 여호와와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They and their descendants were in charge of guarding the gates of the house of the LORD - the house called the Tent.

24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The gatekeepers were on the four sides: east, west, north and south.

9:18 왕의 문

포로기 이후 동쪽 문은 왕의 문이라고도 알려졌다. 따라서 이 문을 지키는 자는 높은 지위의 관원이었다는 해석이 따른다.

25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Their brothers in their villages had to come from time to time and share their duties for seven-day periods.

9:19 고라

모세 시대 '고라'는 반역 사건의 주도자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역대기서는 고라의 후손이 하나님과 백성을 섬긴 사실을 밝히며 가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다.

- 26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공간을 지켰음이라

But the four principal gatekeepers, who were Levites, were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for the rooms and treasuries in the house of God.

- 27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They would spend the night stationed around the house of God, because they had to guard it; and they had charge of the key for opening it each morning.

- 28 그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나오며

Some of them were in charge of the articles used in the temple service; they counted them when they were brought in and when they were taken out.

- 29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Others were assigned to take care of the furnishings and all the other articles of the sanctuary, as well as the flour and wine, and the oil, incense and spices.

- 30 또 제사장의 아들 중의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But some of the priests took care of mixing the spices.

31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맛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A Levite named Mattithiah, the firstborn son of Shallum the Korahite, was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for baking the offering bread.

32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Some of their Kohathite brothers were in charge of preparing for every Sabbath the bread set out on the table.

33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Those who were musicians, heads of Levite families, stayed in the rooms of the temple and were exempt from other duties because they were responsible for the work day and night.

34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All these were heads of Levite families, chiefs as listed in their genealogy, and they lived in Jerusale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성전 문지기로 섬긴 레위 후손이 소개됩니다(17~27).

본 단락은 레위 후손 가운데 성전 문지기 역할을 맡은 주요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고라’의 증손 즉 모세 시대 인물인 고라에게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비느하스, 사무엘-다윗 시대로 내려오면서 문지기로 섬긴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23~27절에 의하면 성전 문지기로 활약한 후손들은 ‘성전 주위’에서 거주하며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난 성전 문을 줄곧 지킵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그들의 열심 있는 손길 곁에는 마을의 형제들이 이레마다 찾아와 도와주곤 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파 간에 이루어진 연합의 장을 느끼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사무엘, 다윗 시대를 거쳐 귀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출입을 지키고 보호해 오신 여호와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의 문을 보호하고는 있지만 실은 성전을 찾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한다는 사실입니다.

2.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28~34)

제사장, 찬양단, 성전의 문지기로 섬긴 레위 지파의 주요 우두머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그중에 어떤 자’, 다시 말해 또 다른 역할을 맡으며 하나님과 백성을 섬긴 가문이 나옵니다. 표현 그대로 그중에 어떤 자들에 속하는 사람은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나 그릇, 제물을 관리하거나 혹은 성소의 기구나 대제사장에게 바를 향유를 만듭니다. 19절과 유사하게 ‘고라 자손’이 다시금 언급되며 등장한 후손 맞디다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습니다(31절). 이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서는 하나님, 성전, 백성을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레위 후손을 알리며 다음과 같은 격려를 내립니다.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였더라”(33절)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이 ‘예루살렘’을 다시 찾은 유다의 후손에게도 일어나기를 요구하시며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백성의 삶을 반복해서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없습니까?
2.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주목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메꾸고 세우시는 손길을 묵상하며, 그 손길이 나와 가정 안에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4,14~15 ¹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²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³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⁴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¹⁴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큼니다. ¹⁵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상 9:35~10:6

오늘의 찬송 538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말씀 속으로

- 35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Jeiel the father of Gibeon lived in Gibeon. His wife's name was Maacah,

- 36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and his firstborn son was Abdon, followed by Zur, Kish, Baal, Ner, Nadab,

- 37 그들과 아히오와 스가라와 미글롯이며

Gedor, Ahio, Zechariah and Mikloth,

- 38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Mikloth was the father of Shimeam. They too lived near their relatives in Jerusalem.

39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
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Ner was the father of Kish, Kish the father of Saul, and Saul the
father of Jonathan, Malki-Shua, Abinadab and Esh-Baal.

40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이라 므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The son of Jonathan: Merib-Baal, who was the father of Micah,

41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The sons of Micah: Pithon, Melech, Tahrea and Ahaz.

42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
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Ahaz was the father of Jadah, Jadah was the father of Alemeth,
Azmaveth and Zimri, and Zimri was the father of Moza.

43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Moza was the father of Binea; Rephaiah was his son, Eleasah
his son and Azel his son,

- 44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라와 오바다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이 이러하였더라

Azel had six sons, and these were their names: Azrikam, Bokeru, Ishmael, Sheariah, Obadiah and Hanan. These were the sons of Azel.

- 1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Now the Philistines fought against Israel; the Israelites fled before them, and many fell slain on Mount Gilboa.

-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The Philistines pressed hard after Saul and his sons, and they killed his sons Jonathan, Abinadab and Malki-Shua.

- 3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The fighting grew fierce around Saul, and when the archers overtook him, they wounded him.

-
- 4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 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레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Saul said to his armor-bearer, "Draw your sword and run me through, or these uncircumcised fellows will come and abuse me." But his armor-bearer was terrified and would not do it; so Saul took his own sword and fell on it,

- 5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When the armor-bearer saw that Saul was dead, he too fell on his sword and died,

- 6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So Saul and his three sons died, and all his house died togeth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사울의 등장은 짧지만 강렬합니다(35~44).

역대기 9장은 고국에 정착한 주요 레위 가문을 소개하였다면, 11장은 헤브론에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다윗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오늘의 본문은 흥미롭게도 사울의 족보와 그의 수치스런 죽음을 짧지만 강렬하게 알립니다. 이러한 배열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암묵적으로 던져 줍니다. ‘사울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질문에 앞서 등장한 신실한 레위 가문은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다윗의 믿음을 비추며,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과 믿음의 세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재차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모세 시대 큰 반역을 일으킨 고라이지만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듯이, 패망한 사울 집안 끝에 목숨을 건재한 ‘요나단의 아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여 줍니다(40절).

2. 사람의 길로 들어선 사울의 결말은 죽음입니다(1~6).

비극적이고도 수치스런 사울의 죽음이 기술됩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이 마지막까지 사울의 발목을 붙잡으며 그 끝을 추궁합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의 공격 앞에 사울의 아들들이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쓰는 활이 이제는 사울에게로 나아가는 참입니다(2~3절). 그때에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죽음만은 피하고 싶었는지, 때마침 곁에 선 신하로 하여금 자신을 찔러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과 권세를 누리고자 한 사울의 끝이 자결하는 것에 불과했던 셈입니다(4절). 성경은 사울 집안의 비보를 선명하게 남기며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6절) 바로 이전에는 직분에 전념한 레위 후손이 강조된 것과 달리 온 집안이 죽음을 맞은 사울의 최후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신실한 왕으로 올곧게 서지 못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봅시다.

1. 레위 후손 뒤로 다윗이 나오는 흐름 속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극적으로 삽입됩니다. 사울 집안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사울은 블레셋을 원수로 여겼지만 스스로 자결한 죽음은 사울이 곧 하나님과 원수임을 반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9:6~9,12~15 ⁶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오. ⁷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⁹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¹² 사람이 제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¹³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¹⁴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¹⁵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4

—
금요일

역대상 10:7~14

오늘의 찬송 295 큰 죄에 빠진 나를

 말씀 속으로

- 7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When all the Israelites in the valley saw that the army had fled and that Saul and his sons had died, they abandoned their towns and fled. And the Philistines came and occupied them.

- 8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The next day, when the Philistines came to strip the dead, they found Saul and his sons fallen on Mount Gilboa.

- 9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They stripped him and took his head and his armor, and sent messengers throughout the land of the Philistines to proclaim the news among their idols and their people.

- 10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They put his armor in the temple of their gods and hung up his head in the temple of Dagon.

-
- 11 길르앗아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When all the inhabitants of Jabesh Gilead heard of everything the Philistines had done to Saul,

- 12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아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칠 일간 금식하였더라

all their valiant men went and took the bodies of Saul and his sons and brought them to Jabesh. Then they buried their bones under the great tree in Jabesh, and they fasted seven days.

- 13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Saul died because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he did not keep the word of the LORD and even consulted a medium for guidance,

- 14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and did not inquire of the LORD. So the LORD put him to death and turned the kingdom over to David son of Jess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서 백성이 도망칩니다(7~10).

성경은 사울 집안이 패망한 사건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죽은 자리에 벌어진 일을 기술합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7절) 안타깝게도 왕이 죽어 부재한 성읍에 백성들은 그만 살 길을 찾아 도망치고 맙니다. 이 짧은 기록은 사울이 생전에 백성으로부터 충분히 존경받지 못한 왕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심지어 처리되지 못한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가 블레셋 손에 넘어갑니다. 블레셋 신전에 놓인 사울의 갑옷과 다곤 신전에 매달린 그의 머리는 그야말로 사울이 걸어온 인생의 행보를 고스란히 보여 줍니다(10절). 뻔산 성벽 곧 이스라엘 영토로 추정되는 곳에 시체가 못 박혔다고 기록하는 사무엘상 31장과 다르게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불순종을 강조하며 이방 신전에 걸린 것으로 묘사합니다.

2.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11~14)

사울과 그의 집안에 불어닥친 참상을 듣고, 길르앗야베스 용사들이 움직입니다(11~12절). 한 때 암몬 사람으로부터 위협받는 그들을 사울이 도와준 이력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다는 대목에서 씁쓸함을 지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남기며 사울의 이야기기를 일단락 짓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13~14절) 이후 성경은 ‘지키지 아니하였다’, ‘묻지 아니하였다’와 같은 평가가 다윗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들려줍니다. 이 말씀은 귀환 공동체로 하여금 듣는 일, 지키는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되물으며 성전을 재건하고 마음의 지성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도록 격려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백성에게 버림받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삶 속에서 가장 두렵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고 증언합니다. 13~14절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나와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1:11~16 ¹¹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¹²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 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¹³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¹⁴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¹⁵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¹⁶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 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Zophar the Naamathite replied:

2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Are all these words to go unanswered? Is this talker to be vindicated?

3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Will your idle talk reduce men to silence? Will no one rebuke you when you mock?

4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You say to God, ‘My beliefs are flawless and I am pure in your sight.’

5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Oh, how I wish that God would speak, that he would open his lips against you

-
- 6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and disclose to you the secrets of wisdom, for true wisdom has two sides. Know this: God has even forgotten some of your sin,

- 7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Can you fathom the mysteries of God? Can you probe the limits of the Almighty?

- 8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They are higher than the heavens - what can you do? They are deeper than the depths of the grave - what can you know?

- 9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Their measure is longer than the earth and wider than the sea,

- 10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If he comes along and confines you in prison and convenes a court, who can oppose him?

- 11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Surely he recognizes deceitful men; and when he sees evil, does he not take note?

- 12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But a witless man can no more become wise than a wild donkey's colt can be born a man,

- 13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Yet if you devote your heart to him and stretch out your hands to him,

- 14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if you put away the sin that is in your hand and allow no evil to dwell in your tent,

- 15 그리하면 네가 만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then you will lift up your face without shame; you will stand firm and without fear.

-
- 16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You will surely forget your trouble, recalling it only as waters gone by.

- 17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Life will be brighter than noonday, and darkness will become like morning.

- 18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You will be secure, because there is hope; you will look about you and take your rest in safety.

- 19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You will lie down, with no one to make you afraid, and many will court your favor.

- 20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But the eyes of the wicked will fail, and escape will elude them; their hope will become a dying gasp."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소발의 훈계가 시작됩니다(1~6).

욥에게서 고통의 언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 친구 중 마지막으로 남은 ‘소발’의 격언이 시작됩니다. 앞서 엘리바스는 고난이 욥을 다시 살린다는 훈계를 전했다면, 빌닷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욥이 큰 죄를 저지른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남은 길은 오직 하나 회개뿐이라고 다그친 셈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소발의 충고를 이어서 들려주고자 하는데, ‘대답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은 욥을 보고 소발이 판단한 내용을 알립니다(1절).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2절) 죄 많은 욥이 어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며 지혜로운 친구들의 훈계마저 거부하려 드냐고 나무랍니다. 소발의 눈에 욥의 고난은 죄를 지은 당연한 대가였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참고 봐 주시는 까닭에 목숨만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소발도 인생을 단편적으로 이해합니다(7~20).

소발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으며,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도 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스스로 재판장이 되시어 재판을 여신다면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이 소발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10절) 그의 논리는 두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과 동일한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와 남김없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합니다(13~14절). 그럴 때에 인생에 다시금 빛이 비추이고, 어둠이 물러난 아침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17절). 그러나 곰곰이 되짚어 볼 때에 소발 역시 안정적인, 부유하고, 위험 없는 삶으로부터 인생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삶의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지, 위태로운 중에도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는 믿음의 세계는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세 친구의 격언이 거세집니다. 그들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엘리바스, 빌닷, 소발 모두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1장에서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욥은 어디에서 희망을 얻었는지 고민해 보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2:4~7 ⁴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⁵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 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⁶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⁷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으므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앞서지 않고 따르기

글 김정진·서지현·MK김하나 (키르기스스탄 선교사)

살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망교회 모든 분들께 함께하시길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2006년 5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으로 들어가 지금껏 사역해 오고 있는 김정진, 서지현, 김하나 선교사 가족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이지만 여러분의 기도 에 신실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맡겨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해 온 일들로는 김정진 선교사가 감당한 '연합신학교' 교수 사역, 서지현 선교사가 섬겨 온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자투센터' 사역, 청년대학생들을 위한 '케인대학교' 사역, 그리고 가족이 함께 도와 온 현지 '안디옥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지현 선교사는 어려운 현지 분들에게 힘과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페이버스' NGO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NGO 사역은 소망교회 청년플러스 지체 분들이 지속적으로 동역해 주셔서 키르기스스탄 남서쪽 밋켄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사랑의 메시지와 선물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세계선교부와 의료선교부에서 보내 주신 구호품들, 단기팀들의 여러 의미 깊은 사역들로 말미암아 그동안 현지인들에게 다양한 혜택들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함으로 고백해 봅니다.

8월부터는 사역의 거점을 북부 '비쉬켈'에서 남부 '오쉬'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동을 염두에 두며 기도해 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주님의 은혜로 북부 비쉬켈에 위치한 연합신학교에는 현지인 교수들이 충분히 세워진 것에 비하여 남부 오쉬에 있는 신학교 분교에는 교수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오쉬에 거주하며 현지 교수진들을 양성하는 동시에 신학교 분교에서의 말씀 사역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서지현 선교사는 오쉬 지역에서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합문화센터 사역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그 센터를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현지 젊은이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눈높이와 취향에 맞춰 유익한 학습과 놀이 그리고 취업에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는 공간을 마련할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잘 압니다.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실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만이 오쉬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키르기스스탄과 무익한 저희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소망교회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8/6~12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
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시 37:40)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말씀 속으로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Job replied:

2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Doubtless you are the people, and wisdom will die with you!

3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But I have a mind as well as you; I am not inferior to you. Who does not know all these things?

4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I have become a laughingstock to my friends, though I called upon God and he answered - a mere laughingstock, though righteous and blameless!

5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Men at ease have contempt for misfortune as the fate of those whose feet are slipping.

-
- 6 강도의 장막은 험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
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The tents of marauders are undisturbed, and those who
provoke God are secure - those who carry their god in their
hands,

- 7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
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But ask the animals, and they will teach you, or the birds of the
air, and they will tell you;

- 8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
리라

or speak to the earth, and it will teach you, or let the fish of the
sea inform you,

- 9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라

Which of all these does not know that the hand of the LORD
has done this?

- 10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In his hand is the life of every creature and the breath of all
mankind,

- 11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Does not the ear test words as the tongue tastes food?

- 12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는 나라

Is not wisdom found among the aged? Does not long life bring understanding?

- 13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To God belong wisdom and power; counsel and understanding are his.

- 14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What he tears down cannot be rebuilt; the man he imprisons cannot be released.

- 15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If he holds back the waters, there is drought; if he lets them loose, they devastate the land.

-
- 16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To him belong strength and victory; both deceived and deceiver are his.

- 17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He leads counselors away stripped and makes fools of judges.

- 18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He takes off the shackles put on by kings and ties a loincloth around their waist.

- 19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He leads priests away stripped and overthrows men long established.

- 20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He silences the lips of trusted advisers and takes away the discernment of elders.

21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He pours contempt on nobles and disarms the mighty.

22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He reveals the deep things of darkness and brings deep shadows into the light.

23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He makes nations great, and destroys them; he enlarges nations, and disperses them.

24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
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He deprives the leaders of the earth of their reason; he sends them wandering through a trackless waste.

25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
게 하시느니라

They grope in darkness with no light; he makes them stagger like drunkard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욥이 단독자로 섭니다(1~12).

말이 많다고 다그치는 소발에게 욥이 대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2절) 더 이상은 참기 어려웠는지 현자라 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지혜로운지를 빈정거리며 묻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이라 낙인찍는 세 친구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불려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4절) 평생에 걸쳐 욥이 하나님과 교제해 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가 하면, 한탄을 거듭하는 중에도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믿음을 살피보게 하는 한마디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둘러싼 상황만을 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쉽사리 판단하였지만, 욥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택함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도록 이끌며, 까닭 없이 찾아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낸 절망의 언어는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에게 지시하는 뜻을 알기 위한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2.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13~25)

세 친구 모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정형화된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반면에 욥에게는 그들과 다른 분명한 고백이 따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이 명확한 정체성을 따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해 온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견고한 믿음은 흐르는 물을 막으시기도 하고, 똑똑한 재판장을 하루아침에 어리석게도 만드시며, 제사장에게 수치를 안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했습니다. 까닭 모를 고난이 지속되는 중에 원망을 피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존재의 뿌리를 안 믿음이 한탄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한 것입니다. 욥이 진실로 두려워한 문제는 현실의 재앙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혹여나 등을 돌리시면 어쩌나 싶은 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욥기서는 단독자로 서서 외로움을 직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 줍니다. 외로운 시간, 외로운 마음을 나는 어떻게 채웁니까?
2. 욥은 하나님과 끊어질 관계를 가장 염려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전하는 근원적인 두려움보다 내가 더 크게 느끼는 두려움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6~8 ⁶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취 주십시오. ⁷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 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큼니다. ⁸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All Israel came together to David at Hebron and said, "We are your own flesh and blood.

- 2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In the past, even while Saul was king, you were the one who led Israel on their military campaigns. And the LORD your God said to you, 'You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and you will become their ruler.'

- 3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When all the elders of Israel had come to King David at Hebron, he made a compact with them at Hebron before the LORD, and they anointed David king over Israel, as the LORD had promised through Samuel.

-
- 4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David and all the Israelites marched to Jerusalem (that is, Jebus). The Jebusites who lived there

- 5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 이더라

said to David, "You will not get in here." Nevertheless, David captured the fortress of Zion, the City of David.

- 6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David had said, "Whoever leads the attack on the Jebusites will become commander-in-chief." Joab son of Zeruiah went up first, and so he received the command.

- 7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David then took up residence in the fortress, and so it was called the City of David.

- 8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He built up the city around it, from the supporting terraces to the surrounding wall, while Joab restored the rest of the city.

- 9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And David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because the LORD Almighty was with hi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마음이 하나되는 일이 중요합니다(1~3).

패망한 사울 집안 소식에 쓸쓸함을 금치 못하는 사이, 다윗의 즉위 소식이 들려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1절) 버려진 주검마저 외면당한 사울과 다르게 성경은 다윗을 찾아온 무리를 주목합니다. 특히나 그들을 가리켜 사용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수를 더한 사실을 실감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까지 합세하면서 무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통치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증거됩니다(2~3절). 사실 다윗은 그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날의 약속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일에 하나된 백성의 모습이 간과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모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환호하는 가운데 다윗의 계보를 이어 오실 예수님의 탄생이 앞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2.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4~9)

환호하는 무리들 한편에 의미심장하게도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5절)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여부스 사람은 가나안 정복 당시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세력으로 예루살렘의 잔존 세력으로 여겨집니다(15:63). 그들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여부스 세력을 치는 다윗이 기습되며, 그를 도운 요압의 공이 높이 평가되기도 합니다(6절).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과, 백성이 한마음으로 따르고 있다는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의 뜻을 담대히 성취하도록 이끕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을 배신한 부정적인 인물로 요압을 묘사한 사무엘하와 다르게 역대기 저자는 그의 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요압이 다윗을 도왔거나 배신한 사실 여부를 떠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신 은혜를 강조합니다(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때가 이르자 왕으로 즉위하고 대적하는 무리를 담대히 무찌르는 장면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지만 그와 함께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대기 저자가 낙심 중에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전한 메시지를 묵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1:1~5,14 ¹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²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³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⁴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 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 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⁵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¹⁴(하나님께서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0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These were the chiefs of David's mighty men - they, together with all Israel, gave his kingship strong support to extend it over the whole land, as the LORD had promised -

- 11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 명을 죽였고

this is the list of David's mighty men: Jashobeam, a Hacmonite, was chief of the officers; he raised his spear against three hundred men, whom he killed in one encounter,

- 12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Next to him was Eleazar son of Dodai the Ahohite, one of the three mighty men,

-
- 13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He was with David at Pas Dammim when the Philistines gathered there for battle. At a place where there was a field full of barley, the troops fled from the Philistines.

- 14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But they took their stand in the middle of the field. They defended it and struck the Philistines down, and the LORD brought about a great victory.

- 15 삼십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Three of the thirty chiefs came down to David to the rock at the cave of Adullam, while a band of Philistines was encamped in the Valley of Rephaim.

- 16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At that time David was in the stronghold, and the Philistine garrison was at Bethlehem.

- 17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헬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David longed for water and said, "Oh, that someone would get me a drink of water from the well near the gate of Bethlehem!"

- 18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헬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So the Three broke through the Philistine lines, drew water from the well near the gate of Bethlehem and carried it back to David. But he refused to drink it; instead, he poured it out before the LORD.

- 19 이르되 내 하나님이어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God forbid that I should do this!" he said. "Should I drink the blood of these men who went at the risk of their lives?" Because they risked their lives to bring it back, David would not drink it. Such were the exploits of the three mighty me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십니다(10~14).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 사건이 나오고,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 아래에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소개됩니다. 그 삼십 명도 나름대로 첫째 삼대 용사, 둘째 삼대 용사로 구분된 모양입니다. 성경은 ‘야소브암’, ‘엘르아살’, ‘삼마’로 구성된 첫째 삼대 용사를 먼저 거론하는데 본 단락에는 앞의 두 인물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소브암은 창을 들면 한 번에 삼백 명을 죽일 만큼 강한 용사였고, 엘르아살은 다윗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힘껏 싸워 보리밭을 지킨 이력을 가집니다. 이렇듯 본 말씀은 야소브암의 용맹무쌍함과 엘르아살의 충성심을 강조하면서도 그만큼 구원이 필요하였던 이스라엘의 절박한 현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정 두 인물을 앞세우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고 증언하며, 다윗과 삼십 명의 용사가 연합한 근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14절).

2.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15~19).

첫째 삼대 용사에 관한 이야기 다음으로 둘째 삼대 용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전투에서 거둔 승리가 전해지기에 앞서 다윗이 처한 역사적 상황이 설명됩니다. 왕으로 즉위는 하였으나 왕권이 공고히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이곳에서는 산성에 있는 다윗과, 베들레헴에 진을 친 블레셋 적진을 대조하는 장면으로 표현됩니다(16절).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을 그리워하자 둘째 삼대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여 물을 길어옵니다. 여기에 다윗이 보인 반응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나!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19절) 표면적으로는 생명을 위하고 사랑한 성품이 부각되지만, 왕권이 견고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임을 고려할 때에 부하 셋이 블레셋 적진을 돌파한 사건은 머지않아 얻게 될 하나님의 승리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사 세 사람이 길어온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으며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시기에 이스라엘에게는 큰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역경 속에서 신실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봅시다.
2. 힘든 시기에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지만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믿음 속에서 포로 귀환 공동체가 다졌을 마음을 떠올려 보고, 나에게도 적용해 볼 점을 생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73~175 ¹⁷³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¹⁷⁴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¹⁷⁵ 나를 살려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0

목요일

역대상 11:20~47

오늘의 찬송 96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 속으로

- 20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Abishai the brother of Joab was chief of the Three. He raised his spear against three hundred men, whom he killed, and so he became as famous as the Three.

- 21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He was doubly honored above the Three and became their commander, even though he was not included among them.

- 22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Benaiah son of Jehoiada was a valiant fighter from Kabzeel, who performed great exploits. He struck down two of Moab's best men. He also went down into a pit on a snowy day and killed a lion.

-
- 23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베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And he struck down an Egyptian who was seven and a half feet tall. Although the Egyptian had a spear like a weaver's rod in his hand, Benaiah went against him with a club. He snatched the spear from the Egyptian's hand and killed him with his own spear.

- 24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Such were the exploits of Benaiah son of Jehoiada; he too was as famous as the three mighty men,

- 25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He was held in greater honor than any of the Thirty, but he was not included among the Three. And David put him in charge of his bodyguard.

- 26 또 군사 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The mighty men were: Asahel the brother of Joab, Elhanan son of Dodo from Bethlehem,

11:23 규빗
히브리어) 암마

27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Shammoth the Harorite, Helez the Pelonite,

28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Ira son of Ikkesh from Tekoa, Abiezer from Anathoth,

29 후사 사람 십브개와 아호아 사람 일래와

Sibbecai the Hushathite, Ilai the Ahohite,

30 느도바 사람 마하래와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렛과

Maharai the Netophathite, Heled son of Baanah the Netophathite,

31 베나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배의 아들 이대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Ithai son of Ribai from Gibeah in Benjamin, Benaiah the Pirathonite,

32 가아스 시냇가에 사는 후래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Hurai from the ravines of Gaash, Abiel the Arbathite,

33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와

Azmaveth the Baharumite, Eliahba the Shaalbonite,

34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the sons of Hashem the Gizonite, Jonathan son of Shagee the Hararite,

35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올의 아들 엘리발과

Ahiam son of Sacar the Hararite, Eliphai son of Ur,

36 므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Hepher the Mekerathite, Ahijah the Pelonite,

37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배의 아들 나아래와

Hezro the Carmelite, Naarai son of Ezbai,

38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밍할과

Joel the brother of Nathan, Mibhar son of Hagri,

39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래와

Zehek the Ammonite, Naharai the Berothite, the armor-bearer of Joab son of Zeruiah,

40 이텔 사람 이라와 이텔 사람 가렙과

Ira the Ithrite, Gareb the Ithrite,

41 헛 사람 우리아와 알래의 아들 사밧과

Uriah the Hittite, Zabab son of Ahlai,

42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삼십 명과

Adina son of Shiza the Reubenite, who was chief of the Reubenites, and the thirty with him,

43 마아카의 아들 하난과 미텐 사람 요사밧과

Hanan son of Maacah, Joshaphat the Mithnite,

44 아스드랏 사람 웃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Uzzia the Ashterathite, Shama and Jeiel the sons of Hotham the Aroerite,

45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Jediael son of Shimri, his brother Joha the Tizite,

46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배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Eliel the Mahavite, Jeribai and Joshaviah the sons of Elnaam, Ithmah the Moabite,

47 엘리엘과 오벳과 므소바 사람 야아시엘이더라

Eliel, Obed and Jaasiel the Mezobait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뜻이 같으면 연합할 수 있습니다(20~25).

둘째 삼대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온 사건이 삽입되었습니다(11:15~19). 이어지는 본 단락은 둘째 삼대 용사에 속한 인물인 ‘아비새’와 ‘브나야’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갑니다. 흥미롭게도 야소브암과 동일하게 성격은 아비새를 향하여 그가 창을 휘두르면 그 자리에서 삼백 명이 죽을 만큼 용사요 우두머리였다고 밝힙니다. 그런가 하면 브나야는 눈이 오는 환경 속에서도 사자 한 마리를 거뜬히 죽일 만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을 묘사하면서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평가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윗을 도우며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노력했지만, 그들 사이에도 나름의 구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모으신 하나님의 섭제하신 섭리와 함께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울 줄 안 다윗의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2. 다윗 왕조에 이방인이 함께합니다(26~47).

본 단락을 기점으로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학자들은 이 목록이 삼십 명보다 많은 우두머리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사무엘하에 기록된 족보를 바탕으로 인원을 추가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나아가 사무엘하와 역대기에 소개된 족보가 가지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유심 있게 살피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다윗의 용사 족보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인구 조사를 실시한 과오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하나님,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연합을 부각시키며 특히 다윗과 용사 우두머리가 함께 치른 전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증언합니다(11:10). 이런 맥락에서 역대기에 기술된 족보는 사무엘하보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왕, 백성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 줍니다. 다윗의 출신 유다 지파 외에도 베냐민 자손, 암몬 사람, 헷 사람 등이 참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모습을 눈여겨 보게도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뜻이 앞설 때 서로 다른 이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는 무엇에 함께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2. 사무엘하 족보는 사람의 힘을 축적하려 한 다윗을 훈계하지만, 역대기 족보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한 용사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같은 사건이 다르게 평가되면서도 공통적으로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7:23~24,39~40 ²³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²⁴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³⁹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⁴⁰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상 12:1~22

오늘의 찬송 528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말씀 속으로

- 1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These were the men who came to David at Ziklag, while he was banished from the presence of Saul son of Kish (they were among the warriors who helped him in battle;

- 2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나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they were armed with bows and were able to shoot arrows or to sling stones right-handed or left-handed; they were kinsmen of Saul from the tribe of Benjamin):

- 3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Ahiezer their chief and Joash the sons of Shemaah the Gibeathite; Jeziel and Pelet the sons of Azmaveth; Beracah, Jehu the Anathothite,

- 4 기브온 사람 곧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아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테라 사람 요사밧과

and Ishmaiah the Gibeonite, a mighty man among the Thirty, who was a leader of the Thirty; Jeremiah, Jahaziel, Johanan, Jozabad the Gederathite,

5 엘루새와 여리못과 브아라와 스마라와 하룻 사람 스바다와

Eluzai, Jerimoth, Bealiah, Shemariah and Shephatiah the Haruphite;

6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잇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브
암이며

Elkanah, Isshiah, Azarel, Joezer and Jashobeam the Korahites;

7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and Joelah and Zebadiah the sons of Jeroham from Gedor.

8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Some Gadites defected to David at his stronghold in the desert. They were brave warriors, ready for battle and able to handle the shield and spear. Their faces were the faces of lions, and they were as swift as gazelles in the mountains.

9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Ezer was the chief, Obadiah the second in command, Eliab the third,

10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Mishmannah the fourth, Jeremiah the fifth,

- 11 여섯째는 앓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Attai the sixth, Eliel the seventh,

- 12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Johanan the eighth, Elzabad the ninth,

- 13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라

Jeremiah the tenth and Macbannai the eleventh,

- 14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These Gadites were army commanders; the least was a match for a hundred, and the greatest for a thousand.

- 15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It was they who crossed the Jordan in the first month when it was overflowing all its banks, and they put to flight everyone living in the valleys, to the east and to the west.

- 16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Other Benjamites and some men from Judah also came to David in his stronghold.

-
- 17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David went out to meet them and said to them, "If you have come to me in peace, to help me, I am ready to have you unite with me. But if you have come to betray me to my enemies when my hands are free from violence, may the God of our fathers see it and judge you."

- 18 그때에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 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Then the Spirit came upon Amasai, chief of the Thirty, and he said: "We are yours, O David! We are with you, O son of Jesse! Success, success to you, and success to those who help you, for your God will help you." So David received them and made them leaders of his raiding bands.

- 19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Some of the men of Manasseh defected to David when he went with the Philistines to fight against Saul. (He and his men did not help the Philistines because, after consultation, their rulers sent him away. They said, "It will cost us our heads if he deserts to his master Saul.")

12:14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되니 그 작은 자는 일당 백이요 그 큰 자는 일당 천이라

- 20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대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When David went to Ziklag, these were the men of Manasseh who defected to him: Adnah, Jozabad, Jediahel, Michael, Jozabad, Elihu and Zillethai, leaders of units of a thousand in Manasseh.

- 21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 떼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됴이엇더라

They helped David against raiding bands, for all of them were brave warriors, and they were commanders in his army.

- 22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Day after day men came to help David, until he had a great army, like the army of G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1~15)

12장은 본격적으로 ‘도우심’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게 물려드는 백성을 묘사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자 성경은 ‘돌아온’, ‘돌아온’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이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극대화시킵니다.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로는 좌우 손을 놀리며 물매를 던지는 일에 특화된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다윗이 사울에 쫓겨 피신해 있는 동안에 동족 사울이 아닌 다윗을 도운 이력을 가집니다(1~7절). 그런가 하면 광야의 요새에서 지내는 다윗을 찾은 갓 지파의 용사는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적군을 물리칠 만큼 맹수였다고 전해집니다(8~15절). 이처럼 성경은 여호와와 도우심을 따라 다윗 왕조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알리며, 귀환 공동체를 향하여 어디에서 돌아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질문합니다.

2. 하나님이 중심이 된 모임에는 평화가 꽃핍니다(16~22).

세력이 흥왕해 가는 사이, 다윗 마음 한편에 나름대로 염려가 생겨난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소.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17절) 그의 감정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배신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다. 백성이 돌아오는 사건이 다윗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배신한 자가 생기거든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순식간에 역사하시어 무리로 하여금 다윗과 함께 있겠다고 고백하게 하시며 왕과 백성의 연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18절). 평화는 나와 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창조됩니다. 성경은 그곳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세워진다고 증언합니다(22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백성이 다윗에게 ‘돌아온’ 사건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의미를 함축합니다. 사울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다윗의 길로 돌아온 백성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걸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이 우선하시는 자리에 평화가 창조되고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4:1~8 ¹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였겠느냐?
²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³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 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⁴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⁵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⁶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⁷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⁸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My eyes have seen all this, my ears have heard and understood it,

- 2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What you know, I also know; I am not inferior to you,

- 3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But I desire to speak to the Almighty and to argue my case with God,

- 4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You, however, smear me with lies; you are worthless physicians, all of you!

- 5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If only you would be altogether silent! For you, that would be wisdom,

6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 보라

Hear now my argument; listen to the plea of my lips.

7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Will you speak wickedly on God's behalf? Will you speak deceitfully for him?

8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Will you show him partiality? Will you argue the case for God?

9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Would it turn out well if he examined you? Could you deceive him as you might deceive men?

10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He would surely rebuke you if you secretly showed partiality.

11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Would not his splendor terrify you? Would not the dread of him fall on you?

- 12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
이니라

Your maxims are proverbs of ashes; your defenses are
defenses of clay.

- 13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
든지 내가 당하리라

Keep silent and let me speak; then let come to me what may.

- 14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
느냐

Why do I put myself in jeopardy and take my life in my hands?

- 15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
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hope in him; I will surely defend
my ways to his face.

- 16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
원이 되리라

Indeed, this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for no godless
man would dare come before him!

- 17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 줄 것
이 있느니라

Listen carefully to my words; let your ears take in what I say.

-
- 18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Now that I have prepared my case, I know I will be vindicated.

- 19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Can anyone bring charges against me? If so, I will be silent and die.

- 20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Only grant me these two things, O God, and then I will not hide from you:

- 21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Withdraw your hand far from me, and stop frightening me with your terrors.

- 22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Then summon me and I will answer, or let me speak, and you reply.

- 23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How many wrongs and sins have I committed? Show me my offense and my sin.

13:15 그가 나를 죽이

시리니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
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
하리니

24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Why do you hide your face and consider me your enemy?

25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Will you torment a windblown leaf? Will you chase after dry chaff?

26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For you write down bitter things against me and make me inherit the sins of my youth.

27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You fasten my feet in shackles; you keep close watch on all my paths by putting marks on the soles of my feet.

28 나는 썩은 물건의 낱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So man wastes away like something rotten, like a garment eaten by moth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의 태도가 변화됩니다(1~19).

13장에 들어오면서 욥이 가지는 태도가 전보다 비장합니다. 더 이상 비난과 야유를 쏟는 친구들과는 논하지 않겠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3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을 잠잠히 듣고 나니 실상은 ‘재 같은 속담’, 그러니까 아무 쓸모 없는 이야기였다는 판단이 한몫을 차지한 듯 보입니다(12절). 심정적으로 친구들과의 결별을 선언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읊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변화된 욥의 심정을 주목하게 만드는 한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근원적인 차원으로 이끌고 가는 믿음을 엿보게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15절) 욥은 지금 절망의 끝에 서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는 희망을 가집니다. 일평생 소망이 되어 주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최고의 고통이요, 외면하고 싶은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2. 욥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20~28).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결단 아래 ‘욥의 기도’라고 이름 붙여진 본 단락이 등장합니다. 이 기도문은 그가 느낀 심정을 결정적으로 드러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24절)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욥이 진정 헤어나오길 원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떠나보낸 상실감과, 몸을 짓누르는 극한의 중기에 둘러싸여 죽여달라, 죽여달라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며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외침을 상기시키는 듯한 욥의 기도는 역설적이게도 살기를 원했던 간절한 심정을 보여 줍니다. 그는 죽음 뒤로 영영 느끼지 못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자신을 불러 주시는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시고 그 부르심에 대답하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22절). 이렇듯 욥기서는 부르시는 하나님과 대답하는 욥에서, 부르는 욥과 숨어 계신 하나님의 간극을 그리며 말씀을 전개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욥은 고통을 호소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보입니다. 함께하는 중에 혹은 홀로 있는 중에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2. 욥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외면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느낍니다. 이 간극을 표현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2:10~11,19 ¹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¹¹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¹⁹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외길 중보 기도회에서

글 방수희 (권사)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외길 기도회는 매일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소망말씀나눔으로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고, 1년 성경읽기 통독이 각 조장님과 전 회원으로 흘러가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매주 수요일 13시 30분에는 선교관 2층에서 월례회 중보 기도 조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동행을 바라고 원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2023년 올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기도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청합니다. 둘째는 조원과 회원을 위한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가지며 다함께 합심으로 중보하는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감사와 찬양, 회개,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권تم 점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허물, 죄와 질병, 문제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외길 중보 기도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순교자 선조들의 피와 증보자 헌신자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6·25 때 UN의 16개국 전투병, 의료 물자, 복구 지원 등 67개국의 도움으로 지켜진 땅입니다. 세계에 빛진 최빈국에서 한미 방위 조약의 안전 속 경제 발전의 도약을 이루었고, 세계 G7 선진국 반열의 선교 국가로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외길 증보 기도회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북한이 진리의 빛과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외길 증보 기도, 소망 성도의 합심 기도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외길 증보 기도회는 또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합니다. MZ세대가 믿음에 서서 삶의 바른 목표를 설정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당당하고 멋지며, 책임감을 가지고, 지혜의 영을 따라 나라를 살리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신병들이 자대 배치 후 믿음 생활 잘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배우고, 포용력, 듣는 마음, 인내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력 있는 영유아유치부, 청소년들로 자라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드림부, 대학부, 청년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신 복을 누리는 말씀의 동행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외길 증보 기도회는 소망교회와 33년을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를 쌓고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생명의 말씀과 기도, 찬양이 있는 외길에서 은혜롭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 위로와 소망, 치유와 격려, 수많은 간증이 흘러갑니다.

이 귀한 사건들로 영생을 꿈꾸고 새로움을 기대하며 도전해 갑니다.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응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주와 함께 싸우고 하나님의 때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외길에서

모든 분이 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통로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택함받은 자의 복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요, 긍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13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8/13~19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시 63:7)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말씀 속으로

- 1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Man born of woman is of few days and full of trouble,

- 2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He springs up like a flower and withers away; like a fleeting shadow, he does not endure,

- 3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Do you fix your eye on such a one? Will you bring him before you for judgment?

- 4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 나도 없나이다

Who can bring what is pure from the impure? No one!

- 5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Man's days are determined; you have decreed the number of his months and have set limits he cannot exceed,

-
- 6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So look away from him and let him alone, till he has put in his
time like a hired man,

- 7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
가 끊이지 아니하며

At least there is hope for a tree: If it is cut down, it will sprout
again, and its new shoots will not fail,

- 8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Its roots may grow old in the ground and its stump die in the
soil,

- 9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yet at the scent of water it will bud and put forth shoots like a
plant,

- 10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But man dies and is laid low; he breathes his last and is no
more,

- 11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잸아서 마름같이

As water disappears from the sea or a riverbed becomes
parched and dry,

- 12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so man lies down and does not rise; till the heavens are no more, men will not awake or be roused from their sleep.

- 13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
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
서

If only you would hide me in the grave and conceal me till your anger has passed! If only you would set me a time and then remember me!

- 14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
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If a man dies, will he live again? All the days of my hard service I will wait for my renewal to come.

- 15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You will call and I will answer you; you will long for the creature your hands have made.

- 16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
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Surely then you will count my steps but not keep track of my sin.

17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My offenses will be sealed up in a bag; you will cover over my sin,

18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But as a mountain erodes and crumbles and as a rock is moved from its place,

19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as water wears away stones and torrents wash away the soil, so you destroy man's hope,

20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You overpower him once for all, and he is gone; you change his countenance and send him away,

21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If his sons are honored, he does not know it; if they are brought low, he does not see it,

22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He feels but the pain of his own body and mourns only for himself,"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을 찾는 욕의 마음이 깊어집니다(1~6).

하나님을 향한 욕의 비장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께 올린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시키는 외침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욕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난의 문제는 마음 한편을 무겁게 만듭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온 그에게 불현듯 고난이 닥친 이유는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인 욕으로서는 당최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욕 사이에 놓인 넓고도 깊은 간극을 선명하게 깨달으며 그가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1~2절)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욕은 유한한 존재이니 그만 살고 싶다며 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2. 죽음 앞에서도 욕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7~22).

고난이 지속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욕의 마음도 깊어져 갑니다. 물론 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셨기에 당연한 결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외침은 모호해져 버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끝내 등 돌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한층 깊어진 욕의 믿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욕은 늙은 나 무도 다시 자라고 가지를 뻗지만,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마지막 남은 부탁을 올려 드립니다. “차라리 나를 스올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 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13절) 죽음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숙명이라면 다만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그의 호소를 들으시며, 들으시는 행위를 통하여 욕을 의인이라 판결하신 말씀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인간의 한계이자 숙명인 죽음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의 고백을 묵상하며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는지 돌아봅시다.
2. 죽음 앞에서 신원을 의탁하는 기도는 욕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 줍니다. 생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7:7~9,11~13 ⁷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⁸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 버린 것일까? 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이신 것일까?” 하였습
니다. (셀라) ¹¹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
렵니다. ¹²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깊이 되새기
겠습니다. ¹³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상 12:23~40

오늘의 찬송 459 누가 주를 따라

 말씀 속으로

- 23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These are the numbers of the men armed for battle who came to David at Hebron to turn Saul's kingdom over to him, as the LORD had said:

- 24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육천팔백 명이었

men of Judah, carrying shield and spear-6,800 armed for battle;

- 25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칠천백 명이었

men of Simeon, warriors ready for battle-7,100;

- 26 레위 자손 중에서 사천육백 명이었

men of Levi-4,600,

- 27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삼천칠백 명이었

including Jehoiada, leader of the family of Aaron, with 3,700 men,

28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이십이 명이요

and Zadok, a brave young warrior, with 22 officers from his family;

29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중에서 나온 자가 삼천 명이요

men of Benjamin, Saul's kinsmen-3,000, most of whom had remained loyal to Saul's house until then;

30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이만 팔백 명이요

men of Ephraim, brave warriors, famous in their own clans-20,800;

31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만 팔천 명이요

men of half the tribe of Manasseh, designated by name to come and make David king-18,000;

32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men of Issachar, who understood the times 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200 chiefs, with all their relatives under their command;

- 33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 명이요

men of Zebulun, experienced soldiers prepared for battle with every type of weapon, to help David with undivided loyalty-50,000;

- 34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천 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삼만 칠천 명이요

men of Naphtali-1,000 officers, together with 37,000 men carrying shields and spears;

- 35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이만 팔천육백 명이요

men of Dan, ready for battle-28,600;

- 36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사만 명이요

men of Asher, experienced soldiers prepared for battle-40,000;

- 37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십이만 명이었더라

and from east of the Jordan, men of Reuben, Gad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armed with every type of weapon-120,000.

38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All these were fighting men who volunteered to serve in the ranks. They came to Hebron fully determined to make David king over all Israel. All the rest of the Israelites were also of one mind to make David king.

39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The men spent three days there with David, eating and drinking, for their families had supplied provisions for them.

40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잇사갈과 스블론과 납달리
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
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
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
쁨이 있음이었더라

Also, their neighbors from as far away as Issachar, Zebulun and Naphtali came bringing food on donkeys, camels, mules and oxen. There were plentiful supplies of flour, fig cakes, raisin cakes, wine, oil, cattle and sheep, for there was joy in Israe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다윗 곁에 강성한 자들이 따릅니다(23~37).

이 단락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으로 돌아가 그곳에 모인 지파를 열거합니다. 성경은 군대 지휘관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사울의 나라를 ‘돌리고자’ 하였다고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여 줍니다(23절). 아마도 사울을 따르던 추종자들로 짐작되는데, 그들 외에도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비롯한 북 이스라엘 지파의 많은 자들이 함께합니다(29~37절). 유다 혹은 베냐민 지파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를 기록하는 구절은 의도적인 편집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학자들은 시간이 흐르고 포로기 후기 시대로 접어든 시점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북 이스라엘 지파의 불어난 수를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그들을 향하여 사용된 ‘큰 용사’, ‘유명한 용사’, ‘통솔하는 자’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로 강성해진 다윗 시대를 묘사하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스불론 지파에 관한 평가는 귀환한 유대 공동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기를 요청하는 말씀을 담습니다(33절).

2.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38~40).

11~12장은 역사의 주요한 시점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통치권이 이양된 시점이지만 사울 집안을 따르는 자들과(12:29),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울의 추종들 사이에 미묘한 대립 구조는 남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38절). 이러한 진술은 다윗 왕조 이후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재통합되기를 바라는 역사적 과제를 보여 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책임은 백성에게도 따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삼 일에 걸쳐 풍성한 축제를 벌인 것처럼 자신들도 먼저 하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법합니다(39~40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게로 ‘돌아오는’ 결단이 선행하였듯이, 귀환한 그들 모두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는 손길들이 함께하기를 간구해 봅시다.
2.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백성을 향하여 ‘돌아왔다’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선택이 그 사람을 보여 주고 결과를 얻게 한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상에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9:9~12,24 ⁹ 내가 저 동녘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¹⁰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¹¹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¹²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²⁴ 내가 나쁜 길을 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1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David conferred with each of his officers, th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2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He then said to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If it seems good to you and if it is the will of the LORD our God, let us send word far and wide to the rest of our brothers throughout the territories of Israel, and also to the priests and Levites who are with them in their towns and pasturelands, to come and join us.

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Let us bring the ark of our God back to us, for we did not inquire of it during the reign of Saul."

4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 하겠다 한지라

The whole assembly agreed to do this, because it seemed right to all the people.

5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랴트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So David assembled all the Israelites, from the Shihor River in Egypt to Lebo Hamath, to bring the ark of God from Kiriath Jearim.

6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랴트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므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David and all the Israelites with him went to Baalah of Judah (Kiriath Jearim) to bring up from there the ark of God the LORD, who is enthroned between the cherubim - the ark that is called by the Name.

7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They moved the ark of God from Abinadab's house on a new cart, with Uzzah and Ahio guiding it.

- 8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David and all the Israelites were celebrating with all their might before God, with songs and with harps, lyres, tambourines, cymbals and trumpets.

- 9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켈을 붙들었더니

When they came to the threshing floor of Kidon, Uzzah reached out his hand to steady the ark, because the oxen stumbled.

- 10 웃사가 손을 펴서 켈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Uzzah, and he struck him down because he had put his hand on the ark. So he died there before God.

- 11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Then David was angry because the LORD's wrath had broken out against Uzzah, and to this day that place is called Perez Uzzah.

-
- 12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David was afraid of God that day and asked, "How can I ever bring the ark of God to me?"

- 13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He did not take the ark to be with him in the City of David. Instead, he took it aside to the house of Obed-Edom the Gittite.

- 14 하나님의 궤가 오벰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벰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The ark of God remained with the family of Obed-Edom in his house for three months, and the LORD blessed his household and everything he ha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다윗이 여호와와 궤를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1~8).

12장은 다윗을 중심으로 백성이 모이고, 용사가 합세하며 세력이 커지는 과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13장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각하며 여호와와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운반하는 과정이 묘사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다윗과 이스라엘 간의 연합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느낀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3절) 자신에게로 점차 몰려드는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을 보며 백성들도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증언합니다(4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한마음이 되어 기랴여아림으로 가서 궤를 가져오는 길에 기쁨이 가득 넘치고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6~8절). 그러나 이것도 잠시, 그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발생합니다.

2. 다윗이 큰 교훈을 얻습니다(9~14).

뜻밖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궤를 싣고 오던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서둘러 궤를 붙잡는 옷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9~10절). 사실 소에 궤를 실어서 운반하는 행위는 이방 종교의 풍습이고, 하나님은 본래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이 궤를 메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궤 자체를 가져오는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살아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자 ‘궤 앞’에서 문자는 3절의 표현과 달리, 9~10절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이전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12절). 자칫하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테고, 그와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새기며 겸손함을 구한 시간이었을 듯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벧에돔 집에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하신 그의 집에 복이 임합니다(13~14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걸은 다윗에게도 믿음의 훈련은 필요했습니다. 궤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를 묻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깨달음을 기록해 봅시다.
2. 옷사의 불미스런 죽음은 세력이 커지는 다윗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흥왕해지는 시기에 그와 백성을 두렵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며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5:12~14, 21 ¹²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¹³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¹⁴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²¹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Now Hiram king of Tyre sent messengers to David, along with cedar logs, stonemasons and carpenters to build a palace for him.

- 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앎이었더라

And David knew that the LORD had established him as king over Israel and that his kingdom had been highly exalted for the sake of his people Israel.

- 3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In Jerusalem David took more wives and became the father of more sons and daughters.

- 4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These are the names of the children born to him there: Shammua, Shobab, Nathan, Solomon,

5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Ibhar, Elishua, Elpelet,

6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Nogah, Nepheg, Japhia,

7 엘리사마와 브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다라

Elishama, Beeliada and Eliphelet,

8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When the Philistines heard that David had been anointed king over all Israel, they went up in full force to search for him, but David heard about it and went out to meet them.

9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Now the Philistines had come and raided the Valley of Rephaim;

10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so David inquired of God: "Shall I go and attack the Philistines? Will you hand them over to me?" The LORD answered him, "Go, I will hand them over to you."

17:1 두로 왕 히람

다윗 후대에 살았던 인물로 추정되며, 솔로몬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11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흠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So David and his men went up to Baal Perazim, and there he defeated them. He said, "As waters break out, God has broken out against my enemies by my hand." So that place was called Baal Perazim,

- 12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The Philistines had abandoned their gods there, and David gave orders to burn them in the fire.

- 13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Once more the Philistines raided the valley;

- 14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so David inquired of God again, and God answered him, "Do not go straight up, but circle around them and attack them in front of the balsam trees,

-
- 15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marching in the tops of the balsam trees, move out to battle, because that will mean God has gone out in front of you to strike the Philistine army.”

- 16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So David did as God commanded him, and they struck down the Philistine army, all the way from Gibeon to Gezer.

- 17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So David's fame spread throughout every land, and the LORD made all the nations fear hi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다윗이 점점 더 깨닫습니다(1~7).

여호와와 궤를 가져오는 길에 경험한 사건은 적잖은 충격을 안깁니다. 웃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기쁨의 잔치를 벌이던 다윗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순식간에 두려움이 임하고, 생각지도 못한 블레셋 사람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집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건이 엄중했던 만큼이나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하도록 이끍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기거할 궁을 언급한 다음에 여호와와 궤 사건을 기술하는 반면(5:11~12; 6장) 역대기서는 역순으로 배치함으로써 다윗의 나라가 무엇에 기초하여 변성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변형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2절) 사울과 달리 다윗은 그의 왕위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므로 신실히 믿고 따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두로 왕 히람마저 움직이며 궁전 건축을 통하여 왕위를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도록 이끍니다(1절).

2.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8~17).

본 단락은 다윗과 블레셋 전투를 기록하는데 그 시기를 두고 입장이 나뉩니다. 사무엘하 5장의 순서를 우선하는 학자는 다윗 왕의 즉위식이 있는 직후에 벌어졌다고 이해합니다. 또 다르게는 본문 16절의 ‘게셀’이라는 지역명과 ‘온’ 세상에 확장된 다윗의 명성을 전하는 17절을 미루어 볼 때, 즉위식이 있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 벌어진 전쟁으로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둘러싼 논쟁을 떠나 이방 풍습대로 궤를 실어오던 다윗이 지금은 블레셋 사람을 전면으로 대항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묻고, 듣고, 나아가는 성숙해진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완전한 승리를 거둔 다윗을 향하여 성경은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17절). 이전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지한 그를 사람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피십시오.

1.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 가며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실존을 붙잡는 믿음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2. 궤를 옮긴 사건 직후에 14장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다윗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의지한 다윗처럼 나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8:14~16,19~21 ¹⁴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¹⁵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¹⁶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¹⁹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²⁰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²¹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
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After David had constructed buildings for himself in the City of David, he prepared a place for the ark of God and pitched a tent for it.

- 2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시라 여호와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Then David said, "No one but the Levites may carry the ark of God, because the LORD chose them to carry the ark of the LORD and to minister before him forever."

- 3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와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하고자 하여

David assembled all Israel in Jerusalem to bring up the ark of the LORD to the place he had prepared for it.

- 4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He called together the descendants of Aaron and the Levites:

5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백이십 명이요

From the descendants of Kohath, Uriel the leader and 120 relatives;

6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이백이십 명이요

from the descendants of Merari, Asaiah the leader and 220 relatives;

7 게르숨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백삼십 명이요

from the descendants of Gershon, Joel the leader and 130 relatives;

8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이백 명이요

from the descendants of Elizaphan, Shemaiah the leader and 200 relatives;

9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팔십 명이요

from the descendants of Hebron, Eliel the leader and 80 relatives;

- 10 웃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백십이 명이라

from the descendants of Uzziel, Amminadab the leader and 112 relatives.

- 11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Then David summoned Zadok and Abiathar the priests, and Uriel, Asaiah, Joel, Shemaiah, Eliel and Amminadab the Levites.

- 12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He said to them, "You are the heads of the Levitical families; you and your fellow Levites are to consecrate yourselves and bring up the ark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to the place I have prepared for it.

- 13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It was because you, the Levites, did not bring it up the first time that the LORD our God broke out in anger against us. We did not inquire of him about how to do it in the prescribed way."

-
- 14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So the priests and Levites consecrated themselves in order to
bring up the ark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 15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짊어 어깨에 메니라

And the Levites carried the ark of God with the poles on their
shoulders, as Moses had commanded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다윗이 궤를 옮길 준비에 들어갑니다(1~10).

여호와와 궤가 오벧에돔 집에 안치된 석 달 동안, 다윗의 깊어진 신앙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마음의 준비, 행동의 준비가 갖추어진 셈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2절) 자신 앞에서 옷사가 죽고 사모하는 궤를 가져오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에 그가 블레셋을 무찌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궤 자체보다 궤를 통하여 자신을 섬기도록 명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가 아닌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며, 모세 시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궤를 가져오는 순종을 보입니다(4절). 그 모습에서 사울과 달리 스스로 범한 우로부터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다윗의 신실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2. 하나님은 겸비한 마음을 살피십니다(11~15).

여호와와 궤를 모셔오고자 레위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윗이 차분하게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12절) 이전에는 운반해 오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준비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다면, 지금은 레위 사람과 그 가족마저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비단 몸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정결한 마음을 갖추라는 의미였습니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구하는 겸비한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까닭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어깨에 궤를 메어 오기 시작합니다(14~15절). 하나님을 향해 묻고 또 물으며 지시함을 받은 왕의 믿음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백성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가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다윗이 가진 특별한 점은 돌이킬 줄 아는 마음입니다. 악의 길을 떠나고 의의 길로 들어서는 다윗의 발걸음처럼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백성들이 바로 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비한 왕, 겸비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67~68,71~72 ⁶⁷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⁶⁸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⁷¹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⁷²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Then Eliphaz the Temanite replied:

2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Would a wise man answer with empty notions or fill his belly with the hot east wind?

3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Would he argue with useless words, with speeches that have no value?

4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But you even undermine piety and hinder devotion to God,

5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Your sin prompts your mouth; you adopt the tongue of the crafty,

-
- 6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Your own mouth condemns you, not mine; your own lips testify against you,

- 7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나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Are you the first man ever born? Were you brought forth before the hills?

- 8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Do you listen in on God's council? Do you limit wisdom to yourself?

- 9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나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나

What do you know that we do not know? What insights do you have that we do not have?

- 10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The gray-haired and the aged are on our side, men even older than your father,

- 11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Are God's consolations not enough for you, words spoken gently to you?

12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Why has your heart carried you away, and why do your eyes flash,

13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so that you vent your rage against God and pour out such words from your mouth?

14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What is man, that he could be pure, or one born of woman, that he could be righteous?

15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If God places no trust in his holy ones, if even the heavens are not pure in his eyes,

16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how much less man, who is vile and corrupt, who drinks up evil like wat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엘리바스의 두 번째 격언이 시작됩니다(1~6).

빌닷의 첫 번째 교훈이 끝나고 엘리바스가 차례를 받아 발언을 이어 갑니다. 사실 그의 주된 논조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4:7) 고난에 상응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이토록 곤고해 졌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입장은 15장에도 동일하게 흐르며 이전보다 격렬해진 음성을 들려줍니다. “네 죄가 네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5절) 이전에 욥이 지은 죄를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지금 내뱉는 원망과 한탄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친구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엘리바스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지는 않은지 되물습니다. 다시 말해 간사한 말, 간사한 혀는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때로는 이것이 무기가 되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평화를 무너트리기도 합니다.

2. 분노는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7~16).

스스로를 현자라 자부하지만 엘리바스 스스로 얼마나 모순적인지가 드러납니다. 그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는 열을 올리며 궤변을 늘어놓지 않는 법인데 누구보다 그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 치며 말을 이어 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더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9절) 자신들의 격언을 두고 ‘재 같은 속담’이라 이른 욥에게 나이 든 연수, 배운 것 많은 지식을 앞세우며 누가 더 옳은 지 저울질하려는 속셈입니다(10절). 그가 정말 지혜로운 자였다면 비난의 화살이 자신을 향할 때에 욥의 심정을 돌보아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제 분을 이기지 못한 엘리바스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며 하나님의 판단을 아는 듯이 선고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천사들마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15절) 그러나 확신에 찬 만큼이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정직한 자기변화와 간사한 자기변화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욥과 사람을 헐 뜯으며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려는 엘리바스를 비교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분을 이기지 못하는 엘리바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스스로 옳음을 정당화하고자 힘을 앞 세우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49~52 ⁴⁹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⁵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⁵¹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흑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⁵²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들을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해 아래의 인생

글 이순기 (부목사)

가족들과 함께 한국민속촌에 나들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함께 다니다가 멀리 구름떼처럼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여 가까이 가 보니 줄타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줄을 타는 사람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아슬아슬하게 흔들거리며 줄을 타고 있었습니다. 줄 위에서 넘어지다가 싶으면 어느새 일어나고, 떨어지다가 싶으면 어느새 다시 안정적으로 줄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가장 환호성을 지른 것은 줄 타는 사람이 부채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부채를 꺼내어 바람을 만들어 가며 유유히 균형을 잡고 줄 너머로 날아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니 기가 막혔습니다. 줄 타는 사람은 마치 줄 너머 어딘가에 초월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줄 위에서의 세상이 아니라, 줄 너머의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돌이켜보니 간당간당하여 아찔한 경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 하는 일, 그리고 관계의 문제 속에서 줄을 타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악재 등으로 인해 불확실한 일들이 발생해서 줄에서 떨어질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라는 큰 산입니다.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는 모습 중에서 임금, 부자, 지혜자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극대화되고 이상화될 수 있지만 결국 허탈할 정도로 끝을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간격이 짧고 유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허무함, 곧 죽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제한성 때문에 끝내 좌절해야만 할까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인생 속에서 일회일비하며 매순간 아찔함을 느끼며 지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1장 3~4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계와 덧없음이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어떤 방향성을 새롭게 유지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 아래의 인생이 지닐 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 그것은 곧 “해 위의 존재”이신, 저기 해 위에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한 허무와 헛헛함, 인생의 무상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여 자족과 희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해 아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너머 초월하여 존재하는 해 위의 것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해 아래의 인생은 해 위의 존재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 아래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줄타기하는 사람이 줄 위에서 뛰어놀듯 무엇인가 초월하여 나아간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줄을 넘어선 모습으로 말입니다.

청년들 중에 미래를 위해 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고시를 통과하여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2점 차로 떨어질 때 너무 아쉬워서 다시 준비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1년만 더” 혹은 “한 번만 더”를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1~2점 차이의 아슬아슬한 차이의 점수라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1~2점 차로 아슬아슬한 결과를 마주할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초월하여 저기 저 너머에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점 차이로 인해 인생을 아슬아슬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실패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초월의 믿음과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걸어갈 수 있고, 줄에서 떨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넘어 전진할 수 있는 힘, 그것은 해 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이것입니다. 해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 아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초월의 모습, 초월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8/20~26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시 119:27)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말씀 속으로

17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Listen to me and I will explain to you; let me tell you what I have seen,

18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what wise men have declared, hiding nothing received from their fathers

19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to whom alone the land was given when no alien passed among them):

20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헛수는 정해졌으므로

All his days the wicked man suffers torment, the ruthless through all the years stored up for him.

-
- 21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
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Terrifying sounds fill his ears; when all seems well, marauders
attack him,

- 22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
다리느니라

He despairs of escaping the darkness; he is marked for the
sword,

- 23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
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He wanders about - food for vultures; he knows the day of
darkness is at hand,

- 24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Distress and anguish fill him with terror; they overwhelm him,
like a king poised to attack,

- 25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
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because he shakes his fist at God and vaunts himself against
the Almighty,

26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defiantly charging against him with a thick, strong shield,

27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Though his face is covered with fat and his waist bulges with flesh,

28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he will inhabit ruined towns and houses where no one lives, houses crumbling to rubble,

29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He will no longer be rich and his wealth will not endure, nor will his possessions spread over the land,

30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
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He will not escape the darkness; a flame will wither his shoots, and the breath of God's mouth will carry him away,

31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
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Let him not deceive himself by trusting what is worthless, for he will get nothing in return,

32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Before his time he will be paid in full, and his branches will
not flourish,

33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 꽃이 곧 떨어짐 같
으리라

He will be like a vine stripped of its unripe grapes, like an olive
tree shedding its blossoms,

34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For the company of the godless will be barren, and fire will
consume the tents of those who love bribes,

35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배속에 속임
을 준비하느니라

They conceive trouble and give birth to evil; their womb
fashions decei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엘리바스가 악인을 묘사합니다(17~26).

엘리바스 눈에 욥은 그저 제 말만 고집하는 악인에 불과합니다. 욥이 겪는 고통스런 현실은 그로 하여금 더욱 확신 있는 판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본 단락은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악인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사실상 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엘리바스에 따르면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악인이더라도 결국 곤두박질치기 마련이고, 고통에 허덕이는 해의 수가 평안을 누리는 날보다 많습니다. 악인을 둘러싼 환난과 역경은 시시때때로 두려움을 안기며,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 보아도 제 몸 하나 겨룰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불쌍한 신세입니다. 그러니 악인이 선 곳은 의인이 살아가는 땅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엘리바스는 흑암으로 덮인 땅에 선 악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느니라”(25절)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 욥은 하나님도, 지혜자인 자신의 가르침도 거부하는 고집스런 악인이었습니다.

2. 엘리바스가 점점 격앙됩니다(27~35).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묘사가 거침없습니다. 욥에게 잘 들으라는 마냥 목소리에 힘도 잔뜩 들어갑니다. 이제 그는 가지가 푸르지 못한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악인을 비유하며 감람 꽃이 떨어지듯 패망하는 결말을 들려줍니다(32~33절). 한마디로 이 땅에서 악인이 밭 딛고 사는 동안에 희망은 없다는 셈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 편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혜자를 능멸하는 악인은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을 오래 가지지 못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29절). 이토록 강압적이고 확신에 찬 변론이지만 그도 결국 표면에 드러난 상황에서 전말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불행해진 욥의 처지만을 살펴볼 줄 알았지, 희망이 꺼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 않으려는 절박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 옳음을 증명하느라 친구의 속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엘리바스도 현자라고는 하나 한계를 가진 인간이 분명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욥거사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을 붙들고 다스리는 능력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2.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욥에게 성을 내며 정죄하는 엘리바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부모, 배우자, 동료로 살아가면서 나는 타인에게 어떤 모습입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보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7:8~9, 30~31 ⁸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⁹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³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³¹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6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David told the leaders of the Levites to appoint their brothers as singers to sing joyful songs, accompanied by musical instruments: lyres, harps and cymbals.

- 17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So the Levites appointed Heman son of Joel; from his brothers, Asaph son of Berekiah; and from their brothers the Merarites, Ethan son of Kushaiah;

- 18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믁네야와 문지기 오벵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and with them their brothers next in rank: Zechariah, Ben, Jaaziel, Shemiramoth, Jehiel, Unni, Eliab, Benaiah, Maaseiah, Mattithiah, Eliphehu, Mikneiah, Obed-Edom and Jeiel, the gatekeepers.

19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The musicians Heman, Asaph and Ethan were to sound the bronze cymbals;

20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Zechariah, Aziel, Shemiramoth, Jehiel, Unni, Eliab, Maaseiah and Benaiah were to play the lyres according to alamothe,

21 맛디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므네야와 오벰에돔과 여이엘과 아
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and Mattithiah, Eliphelehu, Mikneiah, Obed-Edom, Jeiel and Azaziah were to play the harps, directing according to sheminith,

22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나는 노래에 익숙하므로 노래를 인
도하는 자요

Kenaniah the head Levite was in charge of the singing; that was his responsibility because he was skillful at it,

23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Berekiah and Elkanah were to be doorkeepers for the ark,

24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새와 스가랴와 브
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
벰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Shebaniah, Joshaphat, Nethanel, Amasai, Zechariah, Benaiah and Eliezer the priests were to blow trumpets before the ark of God. Obed-Edom and Jehiah were also to be doorkeepers for the ark,

- 25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So David and the elders of Israel and the commanders of units of a thousand went to bring up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from the house of Obed-Edom, with rejoicing.

- 26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Because God had helped the Levites who were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seven bulls and seven rams were sacrificed.

- 27 다윗과 밋 궤를 멘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겹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 에봇을 입었고

Now David was clothed in a robe of fine linen, as were all the Levites who were carrying the ark, and as were the singers, and Kenaniah, who was in charge of the singing of the choirs. David also wore a linen ephod.

- 28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So all Israel brought up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with shouts, with the sounding of rams' horns and trumpets, and of cymbals, and the playing of lyres and harps.

-
- 29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As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was entering the City of David, Michal daughter of Saul watched from a window. And when she saw King David dancing and celebrating, she despised him in her heart.

- 1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They brought the ark of God and set it inside the tent that David had pitched for it, and they present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before God.

- 2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After David had finished sacrificing the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he blessed the people in the name of the LORD.

- 3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Then he gave a loaf of bread, a cake of dates and a cake of raisins to each Israelite man and woma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16~24).

15장 1~11절이 여호와와 궤를 운반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레위 지도자를 언급한다면, 본 단락은 메어 오는 궤와 함께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성전의 문을 지키듯 궤의 문을 지키는 자로 섬긴 사람이 나열됩니다. 특히나 이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오벰에돔’의 이름은 다 음의 사실을 고려하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혈통이 레위 지파인 사람을 고용하여 궤를 운반하게 한 다윗의 순종을 보여 준다면 둘째, 오벰에돔의 존재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레 위인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드 사람 곧 블레셋 출신인 그가 언약궤 를 보관해 준 대가로 문지기로 활약한 대목은 다윗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민족에게로 흘러들어난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호와와 은혜에 대 한 기쁨의 화답이 제사장, 수많은 레위인에 이어 이스라엘 장로들, 천부장에게로 확장되며 다 윗과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하나님이 증언되고 있습니다(25절).

2.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25~16:3).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우렁차게 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28절) 그날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하나님 이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을 ‘도우시며’ 하나님, 다윗, 레위인, 그리고 백성이 다함께 즐거워하 는 모습이 성경에 담깁니다(26절). 그런데 불현듯 등장한 사울의 딸 미갈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춤추고 뛰노는 다윗을 창으로 내다보면서 그녀 안에 업 신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고 맙니다(29절). 번제와 화목제가 드리지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교제가 열리는 복된 시간 한편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셈입니다. 이때에 역대기 저 자는 여호와와 도우심과 그 손길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설지, 아니면 사울처럼 끝내 거역하 는 길로 들어설지를 다시금 질문하며 귀환 공동체가 인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나와 우리 가정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2. 왕의 체면을 차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한 다윗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5:4~5,11~13 ⁴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⁵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므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¹¹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¹²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¹³ 목장마다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4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He appointed some of the Levites to minister before the ark of the LORD, to make petition, to give thanks, and to praise the LORD, the God of Israel:

- 5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맛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벵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Asaph was the chief, Zechariah second, then Jeiel, Shemiramoth, Jehiel, Mattithiah, Eliab, Benaiah, Obed-Edom and Jeiel. They were to play the lyres and harps, Asaph was to sound the cymbals,

- 6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and Benaiah and Jahaziel the priests were to blow the trumpets regularly befo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 7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That day David first committed to Asaph and his associates this psalm of thanks to the LORD :

-
- 8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Give thanks to the LORD, call on his name; make known among the nations what he has done.

- 9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Sing to him, sing praise to him; tell of all his wonderful acts.

- 10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Glory in his holy name; let the hearts of those who seek the LORD rejoice.

- 11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려다

Look to the LORD and his strength; seek his face always.

- 12-13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Remember the wonders he has done, his miracles, and the judgments he pronounced, O descendants of Israel his servant, O sons of Jacob, his chosen ones.

- 14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He is the LORD our God; his judgments are in all the earth.

- 15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 지어다

He remembers his covenant forever, the word he commanded, for a thousand generations,

- 16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the covenant he made with Abraham, the oath he swore to Isaac,

- 17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He confirmed it to Jacob as a decree, to Israel as an everlasting covenant:

- 18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To you I will give the land of Canaan as the portion you will inherit.”

- 19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When they were but few in number, few indeed, and strangers in it,

- 20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they wandered from nation to nation, from one kingdom to another,

-
- 21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He allowed no man to oppress them; for their sake he rebuked kings:

- 22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
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Do not touch my anointed ones; do my prophets no harm.”

- 23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
어다

Sing to the LORD, all the earth; proclaim his salvation day after day.

- 24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 his marvelous deeds among all peoples.

- 25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
외할 것임이여

For great is the LORD and most worthy of praise; he is to be feared above all gods,

- 26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
다

For all the gods of the nations are idols, but the LORD made the heavens,

- 27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Splendor and majesty are before him; strength and joy in his dwelling place.

- 28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Ascribe to the LORD, O families of nations, ascribe to the LORD glory and strength,

- 29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due his name. Bring an offering and come before him;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 30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Tremble before him, all the earth! The world is firmly established; it cannot be moved.

- 3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를 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Let the heavens rejoice, let the earth be glad; let them say among the nations, "The LORD reigns!"

32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Let the sea resound, and all that is in it; let the fields be jubilant, and everything in them!

33 그리할 때에 숲 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Then the trees of the forest will sing, they will sing for joy before the LORD, for he comes to judge the earth.

3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35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Cry out, "Save us, O God our Savior; gather us and deliver us from the nations, that we may give thanks to your holy name, that we may glory in your praise."

36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en all the people said "Amen" and "Praise the LOR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다윗이 찬양단을 앞세워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4~22).

오벰에돔 집에 안치된 여호와와 궤를 가져오는 발걸음에 다윗은 만전에 만전을 기합니다. 그 날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두머리가 따라 나서고 이스라엘 장로, 천부장에 이르기까지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궤를 메고 오는 일에 앞장서야 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 가족들까지도 몸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정성껏 갖추습니다. 그러자 왕 다윗에서 시작하여 백성에 이르기까지 감사 찬송이 하늘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찬양단을 세워 노래를 부르도록 지시하며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천명합니다(7절). 왕의 명령에 힘입어 찬양단이 ‘찬양하라’, ‘감사하라’, ‘자랑하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부탁합니다(7~11절). 하나님 그분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여호와요, 맺으신 언약에 스스로 신실하시어 다윗과 백성을 구원해 오셨습니다(12~22절).

2.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23~36)

여호와와 신실하심을 노래한 찬양단이 백성들로 해야 할 일을 던지시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모든 신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들은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큰 사건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궤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궤가 지시하고 상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궤가 놓인 처소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27~29절).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땅에 속한 것이나 하늘에 속한 것 모두 즐거움을 누리고, 숲 속의 나무들마저 노래합니다(30~33절).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여호와와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울려잡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35절) 이 고백에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혔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왕 다윗이 전면에 서서 여호와와 임재를 찬양합니다. 왕의 주권이 여호와께 난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궤를 메고 들어오는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안에 찬양이 울리고 하나님께 신원을 위탁하는 간구가 울려잡니다. 처소를 찾은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리는 이스라엘의 간구를 묵상하면서 성전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8:16~20 ¹⁶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 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곳이다. ¹⁷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시내 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¹⁸ 주님께서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 왔습니다. ¹⁹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²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37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David left Asaph and his associates befo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to minister there regularly, according to each day's requirements.

- 38 오벰에돔과 그의 형제 육십팔 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벰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He also left Obed-Edom and his sixty-eight associates to minister with them. Obed-Edom son of Jeduthun, and also Hosah, were gatekeepers.

- 39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David left Zadok the priest and his fellow priests before the tabernacle of the LORD at the high place in Gibeon

-
- 40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to present burnt offerings to the LORD on the altar of burnt offering regularly, morning and evening, in accordance with everything written in the Law of the LORD, which he had given Israel.

- 41 또 여호와 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므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With them were Heman and Jeduthun and the rest of those chosen and designated by name to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 42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Heman and Jeduthun were responsible for the sounding of the trumpets and cymbals and for the playing of the other instruments for sacred song. The sons of Jeduthun were stationed at the gate.

- 43 이에 모든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Then all the people left, each for his own home, and David returned home to bless his famil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왕 다윗의 통치 원칙이 세워집니다(37~38).

7~36절에 삽입된 감사 찬양은 여호와와 궤를 메고 들어오는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새롭게 자리잡는 시간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자, 백성이 하나님을 맞이하며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 단락은 전면에서 서서 찬양단을 대표하는 아삽과 그 형제로 하여금 ‘항상’ 여호와와 궤 앞에서 섬기게 한 다윗을 전합니다(37절). 그들과 함께 오벰에돔과 그의 형제, 여두둔의 아들과 호사는 문지기로 활동하며 궤를 지키는 일에 성실히 임합니다. 예루살렘과 기브온 산당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즉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당시에 기브온 산당을 지킨 레위 자손의 명단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두 예배 처소가 하나로 통일되기까지 다윗은 제사장, 레위인, 음악인, 문지기를 양쪽에 세우며 예배와 기도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 한편에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합당한 모습을 갖추며 하나님께 정성을 표한 왕의 충성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2.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하나되는 다윗 왕조입니다(39~43).

본 단락은 사독, 헤만, 여두둔을 호명하며 기브온 성막의 일을 줄곧 맡은 자들을 소개합니다. 사독으로부터 여두둔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즉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지킵니다. 이렇듯 본문 말씀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준 모습을 묘사하며, 사실상 이것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바탕으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눈길을 두기 시작하는데(17장), 이 일에 앞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을 잘 정비하는 모습이 부각되며 결과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암시해 줍니다. 이제 곧 왕과 백성이 함께하는 다윗의 왕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이한 역사를 예고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일이 생깁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치 원리의 으뜸으로 세우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2. 왕 곁에 함께하는 백성이 따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은혜가 가정과 교회를 너머 세상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4:7~10 ⁷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⁸ 영광의 왕이 뉘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⁹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¹⁰ 영광의 왕이 뉘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 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와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After David was settled in his palace, he said to Nathan the prophet, “Here I am, living in a palace of cedar, whil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is under a tent.”

- 2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Nathan replied to David, “Whatever you have in mind, do it, for God is with you.”

- 3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That night the word of God came to Nathan, saying:

- 4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Go and tell my servant David,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 are not the one to build me a house to dwell in,

-
- 5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I have not dwelt in a house from the day I brought Israel up out of Egypt to this day, I have moved from one tent site to another, from one dwelling place to another.

- 6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Wherever I have moved with all the Israelites, did I ever say to any of their leaders whom I commanded to shepherd my people, Why have you not built me a house of cedar?

- 7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Now then, tell my servant David,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 took you from the pasture and from following the flock, to be ruler over my people Israel.

- 8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으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I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have gone, and I have cut off all your enemies from before you. Now I will make your name like the names of the greatest men of the earth.

- 9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And I will provide a place for my people Israel and will plant them so that they can have a home of their own and no longer be disturbed, Wicked people will not oppress them anymore, as they did at the beginning

- 10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and have done ever since the time I appointed leaders over my people Israel, I will also subdue all your enemies, I declare to you that the LORD will build a house for you:

- 11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When your days are over and you go to be with your fathers, I will raise up your offspring to succeed you, one of your own sons, and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 12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He is the one who will build a house for me, and I will establish his throne forever,

-
- 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I will be his father, and he will be my son, I will never take my love away from him, as I took it away from your predecessor,

- 14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I will set him over my house and my kingdom forever; his throne will be established forever.”

- 15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Nathan reported to David all the words of this entire revelatio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을 통해 임합니다(1~10).

마련된 처소에 여호와의 궤가 안치되고, 17장은 백향목 궁전에서 궤를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조명됩니다. 그때에 그는 호화스런 궁에 있으나 궤는 휘장 아래 놓인 걸 보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4절)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결심이 나빠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은 생각을 고치시며 성전을 건축하는 일, 나아가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일 전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제 집안을 축복한다고 생각하였지만(16:43), 실상은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축복하시며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많은 대적을 멸하게 하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8절).

2.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집니다(11~15).

흥미롭게도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들려주신 언약이지만, 정작 언약이 향하고 있는 인물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12절).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의 시대가 솔로몬 때에 이르러 활짝 꽃을 피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익히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죄를 짓지 않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기 저자는 다윗에게 앞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또렷하게 기록하며, 다윗의 나라가 진정 기초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황폐한 예루살렘을 밟게 된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흐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기를 촉구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언약계 운반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립되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단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고민해 봅시다.
2. 궁에 살면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8:1~4 ¹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²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³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Then Job replied:

2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I have heard many things like these; miserable comforters are you all!

3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Will your long-winded speeches never end? What ails you that you keep on arguing?

4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I also could speak like you, if you were in my place; I could make fine speeches against you and shake my head at you.

5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But my mouth would encourage you; comfort from my lips would bring you relief.

-
- 6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Yet if I speak, my pain is not relieved; and if I refrain, it does not go away.

- 7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Surely, O God, you have worn me out; you have devastated my entire household.

- 8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You have bound me - and it has become a witness; my gauntness rises up and testifies against me.

- 9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God assails me and tears me in his anger and gnashes his teeth at me; my opponent fastens on me his piercing eyes.

- 10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Men open their mouths to jeer at me; they strike my cheek in scorn and unite together against me.

- 11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God has turned me over to evil men and thrown me into the clutches of the wicked.

- 12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
숴뜨리시며 나를 세워 과녁을 삼으시고

All was well with me, but he shattered me; he seized me by the
neck and crushed me. He has made me his target;

- 13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
구나

his archers surround me. Without pity, he pierces my kidneys
and spills my gall on the ground.

- 14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Again and again he bursts upon me; he rushes at me like a
warrior.

- 15 내가 붉은 베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뺨을 티끌에 더럽
혔구나

I have sewed sackcloth over my skin and buried my brow in
the dust.

- 16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
구나

My face is red with weeping, deep shadows ring my eyes;

- 17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yet my hands have been free of violence and my prayer is
pure.

-
- 18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O earth, do not cover my blood; may my cry never be laid to rest!

- 19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 20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My intercessor is my friend as my eyes pour out tears to God;

- 21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on behalf of a man he pleads with God as a man pleads for his friend.

- 22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Only a few years will pass before I go on the journey of no retur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욥 안에 근원하는 두려움이 드러납니다(1~17).

엘리바스의 두 번째 격언이 있고 난 후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2절)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의 골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론 친구들을 향해 내뱉은 욥의 냉소 속에는 고난을 겪는 친구에게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는 고백이 나타납니다(4~5절). 한창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한 그가 6~17절에 걸쳐서는 자기 한탄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잡아 부서트리시며 힘겹게 하신다는 증언을 살펴볼 때에 욥이 근원적으로 느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됩니다. 즉 욥은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상실의 고통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의 변영보다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애통해 할 줄 안 욥의 믿음 속에서 욥기서가 보내는 심오한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2. 욥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18~22).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20절)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이고 하나님마저 외면하시는 것 같은 마당에 욥의 슬픔이 더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떨어진 꽃잎처럼 버려진 자신을 돌아볼 자가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 주시어 인생을 보증해 달라고 힘껏 외칩니다(19절). 욥이 이토록 의연할 수 있는 데에는 땅을 증인으로 부르는 모습에도 드러납니다(18절). 세대는 계속해서 변화하며 오고 가고 오고 가지만, 땅은 그 자리를 말없이 지키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는 땅을 증인으로 삼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자연물을 부르는 욥의 음성에서 그가 느꼈을 절박함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응당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기다림 끝에 맞이하게 될 구원의 시간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한편에 제 스스로 하나님인 척 지혜를 일삼는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과 욥의 세계를 단정지를 뿐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욥은 하나님을 인생의 보증자로 모시며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간구할 기도를 함께 올려 드립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64~167 ¹⁶⁴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일곱 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¹⁶⁵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¹⁶⁶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¹⁶⁷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오정동 선교사촌_인돈하우스 | 대전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던 대전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한 집단은 바로 선교사들이었다. 해방 이전까지 호남 선교에 집중했던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부는 1949년 대전에 새로운 스테이션을 설치하기로 하고, 대덕군 회덕면 오정리(현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일대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였다.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그 사업은 1954년 대전에 스테이션과 아울러 대학(한남대)을 세우는 것으로 급진전되었다. 그 결과 1955년 오정리 선교 지구에 선교사 주택 3채를 비롯하여 대학 본관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때 조성된 '오정동 선교사촌'은 현재 한남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의 주택 세 채는 모두 똑같이 한국식 팔작기와지붕에 서양식 조적조 단층 'ㄷ'자형으로 지어졌다. 들어가면서 첫 번째 집이 남장로교 선교사 린튼이 살았던 '인돈하우스'(인돈은 린튼의 한국식 이름이다)이다. 1912년 22살의 젊은 나이로 목포에 도착한 린튼 선교사는 그 후 48년 동안 전주신흥학교와 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남장로교의 교육선교사업에 헌신했다. 그는 남장로교 한국선교회가 세운 한남대학교의 초대 학장으로 역임했다.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민음의 흔적을 찾아_한국의 기독교유적> 중 -

홍성찬(홍군) | 예수쟁이고 겁쟁이고 가난뱅이고 복을 전하는 자유로운 장들뱅이 www.honggoon.net



27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8/27~9/2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시 124:8)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말씀 속으로

- 1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My spirit is broken, my days are cut short, the grave awaits me,

- 2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Surely mockers surround me; my eyes must dwell on their hostility.

- 3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Give me, O God, the pledge you demand. Who else will put up security for me?

- 4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You have closed their minds to understanding; therefore you will not let them triumph,

5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If a man denounces his friends for reward, the eyes of his children will fail,

6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God has made me a byword to everyone, a man in whose face people spit,

7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My eyes have grown dim with grief; my whole frame is but a shadow,

8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Upright men are appalled at this; the innocent are aroused against the ungodly.

9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Nevertheless, the righteous will hold to their ways, and those with clean hands will grow stronger,

- 10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But come on, all of you, try again! I will not find a wise man among you.

- 11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My days have passed, my plans are shattered, and so are the desires of my heart.

- 12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These men turn night into day; in the face of darkness they say, 'Light is near.'

- 13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If the only home I hope for is the grave, if I spread out my bed in darkness,

- 14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if I say to corruption, 'You are my father,' and to the worm, 'My mother' or 'My sister,'

15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where then is my hope? Who can see any hope for me?

16 우리가 흙 속에서 쉼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
이니라

Will it go down to the gates of death? Will we descend together
into the dust?"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욥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1~5).

욥이 세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16:2) 파리해질 대로 파리해진 그를 보면서 제각기 서로 옳은 말을 내겠다고 달려드는 친구들을 보면서 냉소가 저절로 뱉어집니다. 더욱 격앙된 엘리바스의 발언을 듣고 있던 욥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4절) 이유 모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건 아닐지 두려움이 가득한데, 사방에서 날라오는 친구들의 말에 욥도 상기되고 맙니다. 급기야 다른 이의 아픔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라면 그 자손이 눈이 머는 재앙을 선포하기도 합니다(5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믿음을 보인 욥을 주목하게 되지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나님을 찾는 심정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악담을 퍼붓는 자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욥과 세 친구는 어쩌면 비슷했는지도 모릅니다.

2.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서고 일어섬을 반복합니다(6~16).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을 두려워한 믿음은 가상하지만, 욥도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속담거리로 전락해 버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차례 원망스럽습니다. 지혜자라 말하지만 욥의 눈에는 조롱하는 자에 불과한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처지에 이르자 하나님이 더욱 원망스러워질 뿐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기점으로 욥이 알고 믿어 온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 사이에서 절망과 소망, 소망과 절망을 번갈아 느끼며 번민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더 있는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15절) 그러자 끝내는 마음에도 없는 죽음을 선택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 선 욥을 일으키시며 희망의 시간을 준비하고자 하십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시간이 흐를수록 욥과 세 친구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족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린 과거의 욥을 떠올리며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묵상해 보시다.
2.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치닫는 소용돌이 속에서 욥기서는 침묵 중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94~98 ⁹⁴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⁹⁵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깊이 명심하겠습니다. ⁹⁶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⁹⁷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⁹⁸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6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
게 하셨나이까

Then King David went in and sat before the LORD, and he
said: "Who am I, O LORD God, and what is my family, that you
have brought me this far?"

- 17 하나님이어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
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어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And as if this were not enough in your sight, O God, you have
spoken about the future of the house of your servant. You
have looked on me as though I were the most exalted of men,
O LORD God,

- 18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
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What more can David say to you for honoring your servant?
For you know your servant,

19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O LORD, For the sake of your servant and according to your will, you have done this great thing and made known all these great promises.

20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ی 없나이다

There is no one like you, O LORD, and there is no God but you, as we have heard with our own ears.

21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And who is like your people Israel - the one nation on earth whose God went out to redeem a people for himself, and to make a name for yourself, and to perform great and awesome wonders by driving out nations from before your people, whom you redeemed from Egypt?

22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You made your people Israel your very own forever, and you, O LORD, have become their God.

- 23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And now, LORD, let the promise you have made concerning your servant and his house be established forever. Do as you promised,

- 24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
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
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
고히 서게 하옵소서

so that it will be established and that your name will be great forever. Then men will say, 'The LORD Almighty, the God over Israel, is Israel's God!' And the house of your servant David will be established before you.

- 25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
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You, my God, have revealed to your servant that you will build a house for him. So your servant has found courage to pray to you.

- 26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
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O LORD, you are God! You have promised these good things to your servant.

27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Now you have been pleased to bless the house of your servant,
that it may continue forever in your sight; for you, O LORD,
have blessed it, and it will be blessed forev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에 소망이 일어납니다(16~22).

밤중에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시며, 그가 품고 있는 것보다 훨씬 원대한 계획이 성취될 미래를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 앞’ 곧 휘장 아래 놓인 궤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16~17절)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법궤가 가지는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궤가 놓인 위치가 중요하기보다 그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맞닿아 그분의 뜻을 알고, 간구하는 자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상상치도 못할 소망을 품게 됩니다. 단지 가문이 명예로워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왕조를 통하여 백성이 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높임받는 미래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로 간구하게 하십니다(23~27).

언뜻 다윗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한차례 꺾인 순간이기도 하고, 아들에게 더 큰 영광이 예비되는 말씀에 놀랐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이 명하신 일에 겸손히 나아갈 줄 안 믿을 덕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확증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 그 자리에서 마음에 결단이 내려 집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25절) 다윗 홀로는 감히 드릴 생각도 못할 기도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구하며 위대하신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며, 마침내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귀환 공동체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민족의 나은 삶,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삶을 소망한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말씀을 묵상하며 꿈을 포기하고 절망에 사로잡힌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6:26 ²⁶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역대상 18:1~17

오늘의 찬송 412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말씀 속으로

- 1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In the course of time, David defeated the Philistines and subdued them, and he took Gath and its surrounding villages from the control of the Philistines.

- 2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David also defeated the Moabites, and they became subject to him and brought tribute.

- 3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테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Moreover, David fought Hadadezer king of Zobah, as far as Hamath, when he went to establish his control along the Euphrates River.

- 4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David captured a thousand of his chariots, seven thousand charioteers and twenty thousand foot soldiers. He hamstrung all but a hundred of the chariot horses.

-
- 5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When the Arameans of Damascus came to help Hadadezer king of Zobah, David struck down twenty-two thousand of them.

- 6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 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He put garrisons in the Aramean kingdom of Damascus, and the Arameans became subject to him and brought tribute. The LORD gave David victory everywhere he went.

- 7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David took the gold shields carried by the officers of Hadadezer and brought them to Jerusalem.

- 8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From Tebah and Cun, towns that belonged to Hadadezer, David took a great quantity of bronze, which Solomon used to make the bronze Sea, the pillars and various bronze articles.

- 9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When Tou king of Hamath heard that David had defeated the entire army of Hadadezer king of Zobah,

18:8 놋대야
히브리어 '놋바다'

- 10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he sent his son Hadoram to King David to greet him and congratulate him on his victory in battle over Hadadezer, who had been at war with Tou. Hadoram brought all kinds of articles of gold and silver and bronze.

- 11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King David dedicated these articles to the LORD, as he had done with the silver and gold he had taken from all these nations: Edom and Moab, the Ammonites and the Philistines, and Amalek.

- 12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인지라

Abishai son of Zeruiah struck down eighteen thousand Edomites in the Valley of Salt.

- 13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He put garrisons in Edom, and all the Edomites became subject to David. The LORD gave David victory everywhere he went.

14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David reigned over all Israel, doing what was just and right for all his people.

15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Joab son of Zeruiah was over the army; Jehoshaphat son of Ahilud was recorder;

16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위사는 서기관이 되고

Zadok son of Ahitub and Ahimelech son of Abiathar were priests; Shavsha was secretary;

17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Benaiah son of Jehoiada was over the Kerethites and Pelethites; and David's sons were chief officials at the king's sid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시다.

1.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를 거둡니다(1~8).

인간의 생각 속에 결코 가둘 수 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 앞에서 다윗이 꼼짝 없드립니다. 그의 기도가 한차례 올러진 후, 놀랍게도 성경은 정복 전쟁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의 동, 서, 남, 북 사방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영토를 넓히는 승리를 기록한 셈입니다. 그중에서 본 단락은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과 동쪽의 모압 족속과 북쪽의 아람 사람을 무찌른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에 다윗은 패배한 이방 족속이 바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며,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스스로 준비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8절). 물론 다윗이 만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든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시며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진실한 믿음을 따라 적군의 말의 힘줄을 용감무쌍하게 끊어냅니다.

2. 다윗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9~17).

소바 왕 하닷에셀과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는 피 흘림 없이 하맛 왕 도우로부터 조공을 얻게도 합니다(9~10절). 역대기 저자는 ‘그것도’ 즉 이전의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게 얻은 전리품마저 하나님께 바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14~17절에 걸쳐서는 군사적으로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지혜로운 면모를 갖춘 다윗이 강조됩니다. 나라의 살림이 잘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사람을 등용합니다. 이로써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의 입지를 견고하게 세우는가 하면, 대내적으로는 백성의 살림을 살피며 살 길을 열어 준 최고의 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다윗의 훌륭한 통치 기반에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안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다고도 볼 수 있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그의 계보를 이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다윗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 앞에서 남김없는 헌신과 순결한 믿음을 보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린 사건을 연결시키는 흐름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기록해 봅시다.
2. 성경은 다윗의 영웅적인 면모와 함께 백성을 살피고 생명을 위한 줄 안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 마음이 나와 가정 안에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8:31~35 ³¹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³²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 ³³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 주신다. ³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낫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³⁵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 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말씀 속으로

- 1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In the course of time, Nahash king of the Ammonites died, and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 2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David thought, "I will show kindness to Hanun son of Nahash, because his father showed kindness to me." So David sent a delegation to express his sympathy to Hanun concerning his father. When David's men came to Hanun in the land of the Ammonites to express sympathy to him,

- 3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the Ammonite nobles said to Hanun, "Do you think David is honoring your father by sending men to you to express sympathy? Haven't his men come to you to explore and spy out the country and overthrow it?"

4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So Hanun seized David's men, shaved them, cut off their garments in the middle at the buttocks, and sent them away.

5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When someone came and told David about the men, he sent messengers to meet them, for they were greatly humiliated. The king said, "Stay at Jericho till your beards have grown, and then come back."

6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밋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샀 내되

When the Ammonites realized that they had become a stench in David's nostrils, Hanun and the Ammonites sent a thousand talents of silver to hire chariots and charioteers from Aram Naharaim, Aram Maacah and Zobah,

7 곧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치매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They hired thirty-two thousand chariots and charioteers, as well as the king of Maacah with his troops, who came and camped near Medeba, while the Ammonites were mustered from their towns and moved out for battle.

8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On hearing this, David sent Joab out with the entire army of fighting men,

9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The Ammonites came out and drew up in battle formation at the entrance to their city, while the kings who had come were by themselves in the open country.

10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Joab saw that there were battle lines in front of him and behind him; so he selected some of the best troops in Israel and deployed them against the Arameans,

11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He put the rest of the men under the command of Abishai his brother, and they were deployed against the Ammonites,

12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Joab said, "If the Arameans are too strong for me, then you are to rescue me; but if the Ammonites are too strong for you, then I will rescue you.

-
- 13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Be strong and let us fight bravely for our people and the cities of our God, The LORD will do what is good in his sight.”

- 14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Then Joab and the troops with him advanced to fight the Arameans, and they fled before him.

- 15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When the Ammonites saw that the Arameans were fleeing, they too fled before his brother Abishai and went inside the city. So Joab went back to Jerusalem.

- 16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After the Arameans saw that they had been routed by Israel, they sent messengers and had Arameans brought from beyond the River, with Shophach the commander of Hadadezer's army leading them.

- 17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When David was told of this, he gathered all Israel and crossed the Jordan; he advanced against them and formed his battle lines opposite them. David formed his lines to meet the Arameans in battle, and they fought against him.

- 18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천 대의 군사와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쇼박을 죽이매

But they fled before Israel, and David killed seven thousand of their charioteers and forty thousand of their foot soldiers. He also killed Shophach the commander of their army.

- 19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When the vassals of Hadadezer saw that they had been defeated by Israel, they made peace with David and became subject to him. So the Arameans were not willing to help the Ammonites anymor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인간의 꾀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1~15).

19장에도 다윗의 승전 소식이 기록됩니다. 성경은 생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답례로 다윗은 죽은 나하스를 문상하고자 신하 몇을 보냅니다(1~2절). 그러나 아버지 나하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하논 곁에서 신하들이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자 문상길에 오른 다윗의 신하들이 큰 능욕을 받게 됩니다(3~4절). 그러자 다윗은 돌아온 신하들부터 살뜰히 챙기며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도록 배려했고, 자신의 왕조를 업신 여긴 것과 다름없는 하논의 행보에 용사를 출전시킵니다(5,8절). 그 사이 하논과 신하들은 나름대로 꾀를 내어 아람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수비 작전에 들어갑니다. 꾀를 낸 그들과 달리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을 따라 아버지새와 작전을 짜고, 전쟁터에 의연히 나아갑니다(10~13절). 전쟁은 인간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로 끝이 나며,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2.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16~19).

그런데 아람 군대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눈앞에서 패배를 경험한 이들이 굴복하기는커녕 이번에는 소마 왕, 즉 아람 왕 하닷에셀의 군사령관이 직접 앞장을 서며 큰 부대를 거느리고 다가옵니다(16절). 출전 소식이 들려오자 다윗이 스스로 싸울 태세를 갖추며 아람 군대에 맞서 진을 칩니다(17절). 역시나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윗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비로소 아람 왕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다윗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암몬의 왕 하논이 요청하여 다윗을 무찌르고자 하였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다윗을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쓰라린 패배의 고배를 마신 후에야 꾀를 낸 암몬 자손에게 넘어간 일을 후회하게 되고, 그 사이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다윗의 세력을 본 후에 아람이 더 이상 암몬 자손과 손을 잡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19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사람은 꾀를 내지만 하나님은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위기를 대한 암몬 자손을 보면서 내 안에도 동일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꾀를 내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암몬과 손을 잡았지만 이후에는 다윗과 화친을 맺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엮드린 아람 군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됩니까? 인간의 어리석은 판단과 실수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외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4:14~18 ¹⁴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¹⁵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¹⁶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 버리신다. ¹⁷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 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 ¹⁸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일을 할 때면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물질의 논리,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잡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듯해 보이지만 허망하게 끝날 것들에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오랫동안 기도해 온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만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눈물로 간구하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의심할 때마저 있었음을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싶지만 의심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고백한 시편 기도자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척박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홀로 걷는 광야의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기쁘게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6.15(목) 새벽기도회 중에서



<보 이즈 어프레이드>를 통해 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시선

글 황영미 (집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복음 12:7 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잘못을 알고 계신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다윗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기지 못함을 강조한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4)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시편 139:12 중)

위의 성경과 유사한 내용의 영화가 개봉되었다. 7월 개봉한 <보 이즈 어프레이드>이다. 주인공 보 Beau가 자신의 집을 점령한 사람들이 두려워 옆집의 공사 중인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 자신의 방을 들여다보다 잠이 들었는데, 보의 뒤로 뒷 건물 벽, 즉 자신의 집 창에서 바로 보이는 벽에 예수님 얼굴로 보이는 그림과 함께 “예수는 너의 혐오스러운 것을 알고 있다”라는 글자가 씌어 있다. 우리가 혐오스러운 것을 하고도 예수께서 모를 줄 알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한다. 이 영화에서는 성모상으로 상징되는 보의 어머니가 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는 존재는 예수뿐만 아니라 대타자로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 이즈 어프레이드>의 상황

<보 이즈 어프레이드>는 오컬트 거장으로 인정된 아리 에스터 감독의 세 번째 영화다. 그동안 오컬트적 가족호러 영화 <유전>, 섬뜩한 심리적 공포 영화 <미드 소마>를 만든 감독이다. 게다가 영화 <조커>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호아킨 피닉스(Joaquin Phoenix)가 주인공이라니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보 이즈 어프레이드>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영어 원제를 그대로 한 영화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파악되지 않지만, 주인공 이름이 ‘Beau 보’다. 그러므로 제목의 의미는 ‘보는 두렵다’는 의미가 되겠다. 미국 영화 사이트인 IMDB의 줄거리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온화하지만 불안에 휩싸인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 서사시적인 카프카식 오디세이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두운 두려움에 직면한다고 써어 있다. 이 영화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우스의 여정에서 차용된 점이 많다. 주인공 보가 엄마 집으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기가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오디세우스는 여러 섬을 떠돌다가 어느 섬에서 한 시인이 낭독하는 서사극을 보게 되었는데, 오디세우스 자신의 영웅담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결국 자신임을 밝히고, 고향인 이타케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다. ‘보’ 역시 집으로 가는 길에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연극을 보고 참여하다가 객석에 앉는다. 객석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무대에서 공연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문제는 ‘보’는 오디세우스 같은 영웅이 아니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도 아니요,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편집증에 걸린 아들이었다. 물론 오디세우스의 영웅담이 성공하는 지점은 그가 최대한 낮추어지고 심지어는 걸인 행세를 하며 집으로 귀환할 때다. 영웅이 영웅으로 보이기를 거부하고 노바디의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보’가 모든 것을 잃고, 산속에서 만나 자신을 도와 준 여성에게 엄마에게 줄 선물까지 주면서 빈손으로 엄마 집에 가게 된다는 점, 그런데 엄마 집에 도달하였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파멸하는 과정으로 표현된다.

오디세우스가 영웅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필부, 즉 평범하게 페넬로페라는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만 신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는 길을 허락한다. 그런 점에서 보도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성장하게 된다. 성장은 곧 그의 죽음을 말하는 아이러니적 결말 또한 신의 예정된 질서인 것일까? 인간이 이토록 힘들게 우여곡절을 겪어 가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려는 여정을 지냈는데, 결국 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인가?

그런 점에서 양수를 뚫고 세상으로 갓 태어나는 보의 시선으로 그런 오프닝은 그가 다시 물로 들어가는 엔딩과 수미상관을 이룬다. 영화나 서사에서 물이라는 이미지는 모성, 여성, 사랑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성에서 벗어나려 갈등하고 대결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보’는 편집증, 피해망상과 불안, 모성 집착 심리도 가지고 있다. 심리 영화화면 프로이트가 얼른 떠오른다. 이 영화도 프로이트적이다. 그런데 프로이트식이라면 당연히 그가 극복하고 싸워야 할 대상인 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범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배 위에서 복상사하였기 때문에 없다. 그러므로 그는 엄마의 범과 싸워야 한다.

〈보 이즈 어프레이드〉 포스터에는 4명의 남자 얼굴이 있는데 모두 보의 얼굴이다. 보가 소년에서 성장하여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보는 무엇이 두려웠을까? 피해망상의 심리적 기전을 가진 보는 자신을 죽이려는 대상들(외부의 사람)이 두렵다. 그런데 실제 그럴까? 아니다. 보에게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다. 영화는 이 모티프를 조금 더 확장시켜 모성 콤플렉스와 겹쳐 놓기도 하고, 보의 성장 드라마로 바꿔 놓는다.

외부 세계나 외부 사람들이 보를 공격하는 것도 다양하다. 거리의 살인자가 그를 뒤따라 와서 칼로 배나 손바닥을 찌르기도 하고, 보가 차에 치여 다치기도 한다. 보는 당하기만 한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공격한다고 느껴진다. 먼저 엄마 모나는 그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를 감시한다. 모나의 회사 중 CCTV 회사가 있는 것도 그것을 의미한다. 엄마의 집 벽에 걸려 있는 사진 모자이크 조각에 그동안 보와 관계가 있었던 상담사와, 그가 사랑한 일레인도 있다. 그러니 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엄마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영화의 모든 공격이 보의 상상이라면 어떨까? 이 영화는 인간 누구나 자신은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공격을 통해 스스로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심리를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보거나 느끼는 감정과 기억들이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왜곡시킨 것은 없을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는 않은가. 역으로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그런 점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보 이즈 어프레이드>는 인간의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자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자신의 입장으로만 볼 수밖에 없기에 타인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 준 것을 알면서도 고백하거나 표현 못한 점이 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셨는지?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가치관

기독교인들은 바람직한 가치관을 성경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잘잘못을 모두 보고 계시는 예수의 시선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평가받게 될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된 사람에도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오래 미뤄 둔 사과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해 보자. 그들에게 한 행위나 말이 바로 예수께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보 이즈 어프레이드> 공식 스틸 이미지

- 이 글은 부산영화의 전당 오디오해설영화관 '보 이즈 어프레이드'에 대한 필자의 비평 (<https://www.dureraum.org/bcc/board/view.do?rbsidx=327&idx=114>)을 바탕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여름 단비를 기대하며

글 교회학교



돌봄받는 은혜

글 중등1부 김하연 학생

저는 부모님을 따라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귀찮아하거나 가기 싫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예배도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찬양할 때도 그냥 노래를 감상하는 듯이, 말씀을 들을 땐 조금 멍하기 있기도 했습니다. 예배 후 말씀 나눔 시간에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이 즐거워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각하고 나니 죄책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노력을 헛되이 만드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헛드렸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급기야 교회 오는 이유마저 혼란스러워졌지만 정작 제 태도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예배 시간에 하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

을까 하는 마음에 참석을 신청했습니다. 소망수양관에 도착하니 재밌게 놀 생각에 마음이 붕 뜬습니다. 재밌는 활동들을 즐기고 나니 수련회의 꽃인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와중에 목사님의 한마디가 귀에 꽂혔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도 좋고 무릎을 꿇어도 좋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싶어 살포시 꿇었습니다. 주변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상태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도회 이후로 제 삶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드릴 때는 가사에 더 집중해 보고, 목사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았습니다. 제 일상생활도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끝없는 학업에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물론 제 신앙생활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가오는 23년도 여름수련회가 기대됩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큰 영향을 주리라 믿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수련회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 가시길 기도하고,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꼭 만나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섬김의 은혜

글 중등2부 강규미 교사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

중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며 즐겁게 춤추던 작년 이맘때 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사역 선생님들을 보며 ‘나도 커서 꼭 사역 교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던 제가 대학생이 되고 중등부에서 사역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양관에서 몇 년간 수련회를 하지 못하다가 작년 여름, 오랜만에 여름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가는 수련회이기도 하고, 사역 교사로서 참여하는 첫 수련회였기에 기대와 설렘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무색하게 일정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이후 찬양을 하는 셀레브레이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망설이던 학생들이 조금씩 단상 쪽으로 가더니 대부분 앞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신나게 위십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덩달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에 지쳐 주일에는 가끔 무뚝뚝한 모습을 보이던 학생들이 해맑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련회 이후 원래

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친구 따라 수련회를 온 학생 한 명은 수련회가 너무 좋았으며 새 친구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수련회의 은혜를 이어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3년도 중등부 여름수련회가 몇 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은혜로 새롭게 채워 주실지 기대됩니다.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의 은혜

글 고등1부 김태현 학생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교에서 정선으로 캠프를 갔습니다. 기독교교라는 커다란 틀 아래에서 캠프의 목적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였습니다. 4박 5일간의 캠프가 숫자로는 길게 느껴졌지만 돌이켜 보면 상당히 짧은 순간입니다.

가장 먼저 침묵 유지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나 세탁소가 40분일 정도로 외진 산 속에서 진행된 훈련은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농사 일을 하면서 저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침묵을 깰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고, 예배와 기도회로 끝내는 일정은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6개의 조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6조였는데, 캠프를 가기 위한 한 달 동안의 과정과 4박 5일의 캠프 기간은 저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팀원끼리만 가까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다른 팀의 조원들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완전하게 깨닫게 된 것은 마지막 기도회 시간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라는 사실을 느꼈고,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선생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선생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하여서 노래도 부르고 농사 일도 도왔습니다. 그때 저희의 표정과 노래를 따라 박수 쳐 주신 할머니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함께 즐거워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찬양의 기쁨 속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랑으로 연합된 시간이었습니다. 캠프를 통해 저는 많은 이들과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들과, 선

생님들과, 그리고 세상과의 사랑의 연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소망교회 고등부 안에서도 관계의 연합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고등1부 교회학교 친구, 선후배들, 선생님들과 더욱 하나되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모두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겹줄의 은혜

글 고등2부 김민서 교사

2016년 중고등부 라오스 선교에 교사로 함께 갔다가 병원 투위를 한 기억에 체력을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터라 남편과 함께하는 여정이 아니면 홀로 가는 순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등록을 강행했고, 준비하는 4개월간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만 둘 때면 남편이 오히려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고, 그렇게 인바디 최고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열흘 전, 코로나가 의심될 정도로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정신마저 오락가락하며 주일에는 USB를 잃어버려 고등부가 동원되어 찾다가 핸드백에서 나오는 해프닝까지 겪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성지순례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게요.” 하시는 말에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체력만 되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작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솔직한 회개와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고등 2부 홍준우 목사님과 2학년 선생님들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순례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가장 인상 깊은 시간은 버스에서 매일 이뤄지는 말씀 묵상과 나눔이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함께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도 심히 좋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찬식이 있는 주일 예배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주님과 연합함이 감사하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여기저기서 조용한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곳 소망교회, 그리고 고등부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임을 선포해 봅니다. 특하나 부서에서의 지지와 기도가 없었다면 성지순례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중보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교사로, 고등2부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하는 팀원을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땅이 낸 고백 1



‘왜 이제야 왔을까’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딛고 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니면서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라도 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성지의 땅으로 부르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여 참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다닌 순례 여행이었습니다.

서른네 살 늦은 나이에 소망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세례 문답을 외우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질문을 딱 한 가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며 눈물이 쏟아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에서 십자가를 지고 걷자 그때의 고백이 되살아나며 은혜와 감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깨뼈에 느껴지던 십자가의 날카로운 통증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을 아주 짝꿍이나마 알 수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말하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 동굴을 보았을 때의 감동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던 마구간이 아니고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는 1층 밑에 지하 동굴을 만들고 거기에 가축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좁은 공간으로 내려가 다윗의 별이 그려진 바닥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복음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가버나움의 성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 옆의 베드로 집, 배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말씀을 전하시며 병자를 고치시던 모습이 이제는 눈앞에 더 생생히 그려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는 어마어마한 이방 신전터가 있던 거대한 암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좇아 갔던 마가의 다락방, 겐세마네 동산, 채찍과 조롱을 받으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빌라도의 법정, 골고다 언덕까지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앞에서 펼쳐지는 현장 같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처럼 새로운 기쁨을 마주합니다.

이번 여행의 또 다른 은혜는 여정을 함께한 스물일곱 팀원들입니다. 버스 안에서의 자기소개 시간, 밤마다 가진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듣게 된 진솔한 인생 이야기와 신앙 고백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팀원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믿음의 선배이고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고난의 바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썼다는 그 돌판에 손을 얹고 꿇어 기도할 때, 그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내 삶의 근본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글 김완진 (장로)

8지구에서 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계획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번 여행에는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한번은 늘 가 보고 싶은 여행인 레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의 인도로 익숙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을 받치는 두 기둥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본고장이 아닌가? 세상 변방의 한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무명의 인물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한 기독교 운동이, 바울이라는 또 한 인물의 열정에 찬 전도 여행으로 아테네를 거쳐 당대 최고의 도시 로마까지 이르러서는 서구 세계 전체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섭리를 두 도시를 동시에 여행하며 만끽한 행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신앙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기행이라는 기대를 가득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과연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첫째 날 텔아비브 공항 도착부터 가이사라 유적지, 갈멜수도원, 므깃도 유적지를 돌아본 다음, 다음 날부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사렛, 가나를 거쳐 갈릴리 북쪽의 단과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서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 팔복산, 오병이어 기념교회, 베드로 수위권교회를 돌아보고 갈릴리 선상에서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음의 눈으로 함께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갈릴리 호숫가의 큰 도시 티베리아스에서 일박하면서 목격한 그 지역 팔레스타인인들의 고단한 삶이 여행 내내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호수를 떠나 요단 계곡을 따라 내려가 여리고에 이르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세례터와 시험을 받으신 시험산과 함께 유대 광야의 장엄함을 체험하였습니다. 사해 주변의 쿠파나와 마사다를 돌아본 다음, 드디어 여리고에서 가파른 광야 길을 올라가서 예루살렘 전경을 바라보는 순간,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떠올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날 아침 일찍 관광객이 드문 한가한 시간에 비아 돌로로사로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체험하면서 800m의 이 짧은 길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나타난 역사의 현장이라는 감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교회,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를 거쳐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는 기드론 골짜기 너머 눈앞에 펼쳐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녁에는 베들레헴에 여장을 풀고 예수탄생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건물의 지하에 양과 같은 동물을 기르고 그 위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설명을 듣고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마구간이 아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현장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통곡의 벽과 다윗성, 히스기야 수로를 직접 걸어서 통과한 다음,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공항으로 가서 데살로니키행 비행기를 타고 그리스로 향했습니다. 그리스 여행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발을 디딘 네아폴리(카발라)에서 시작해서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 암비볼리를 거쳐 메테오라 수도원 부근에서 일박한 다음 날, 유럽 문명의 심장부 아테네에 입성하였습니다. 과연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서양 문명의 상징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균형과 절제와 조화 가득한 건축물과 수많은 조각품은 인간 이성의 극치를 나타내며 철학과 과학이 왜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아테네가 이 여행의 절정이었다면 마지막으로 방문한 고린도는 그 여운을 남겨주는 대미의 장소이라고 할까요.

예루살렘과 아테네, 신앙과 철학의 만남을 몸으로 체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동안의 여정을 천천히 돌아보고 음미하면서, 이제는 묵상과 기도로 그 감격을 내 신앙과 삶으로 녹여 내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글 · 그림 이호연 (성도)

요한복음 2장

¹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 그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²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³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⁵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162 X 112 cm
Oil on canvas
2015



헌화이야기 20

8월, 우리의 고백



7월 2일 주일

글 안진현 (권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이 헌화를 통하여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7월 9일 주일

글 이영주 (집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7월 16일 주일

글 최순옥 (권사)

와우~ 엄청 답네!
나무 그늘에서 쉼 얻자



헤른후트,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글 박경수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그림 이근복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네트워크 원장)





그림 1

필립 슈페너로부터 시작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은 니콜라우스 친첸도르프 백작이 계승했다. 친첸도르프는 슈페너가 죽기 5년 전, 1700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귀족 집안 출신인 그는 외할머니 헨리에테 카타리나 손에 자랐다. 외할머니는 슈페너와 경건주의 운동을 적극 지지했으며, 자국어 성경 번역을 추진하고, 소녀들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 등 종교와 사회의 개혁에 힘을 쏟았다. 슈페너가 친첸도르프의 대부가 된 것도 외할머니 덕분이었다.

친첸도르프는 어린 시절 경건주의 요람이었던 할레^{Halle}에서 아우구스트 프랑케로부터 감화를 받고, 1716년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가 법학을 공부했다. 그 후 독일뿐 아니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를 여행하며 다양한 신앙 전통을 접했다. 후일 그는 뒤셀도르프 박물관에서 도메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를 보면서 회심을 경험했다고 회고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분을 사랑했지만, 실제로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1722년 친첸도르프는 모라비아 형제들을 만났다. 이들은 얀 후스의 후예로 모라비아와 보헤미아 지역에서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친첸도르프는 작센에 있는 자기 영지로 이들을 받아들여 ‘헤른후트^{Herrnhut}’ 공동체를 만들어 경건주의를 실험했다. 헤른후트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뜻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헤른후트는 박해받는 사람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피난처가 되었다.

[그림1]은 헤른후트에 있는 친첸도르프 집이다. 1721년 세워진 이 집의 문 위에는 스가랴 9장 12절과 고린도후서 5장 1~2절이 적혀 있다. 친첸도르프는 땅에 있는 집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잠시



그림 2

머무는 곳일 뿐이기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했다. 집 내부는 그의 생애와 사역을 소개하는 작은 박물관 역할을 한다.

[그림2]와 [그림3]은 헤른후트 예배당 외부와 내부의 모습이다. 소박하고 단순한 구조가 모라비아 형제단 정신을 그대로 보여 준다. 친첸도르프는 '말씀' '기도'라는 두 기둥에 기초한 '형제애적 일치[Brüderlicher Vertrag]' 문서를 작성했고, 모라비아 형제들은 1727년 5월 12일 서명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적 삶을 위한 모라비아 형제들의 언약' 혹은 '헤른후트 형제들의 언약'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727년 8월 13일 '모라비아 형제들의 오순절'이라 불리는 영적 갱신을 경험했다.

헤른후트 공동체에는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는 말씀묵상집이 있는데, 바로 '로중[Losungen]'이다. 로중은 군사 용어로 '암구호'를 뜻한다. 전투에 나서는 군인이 피아 식별을 위해 암구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로중은 1731년부터 거의 300년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영감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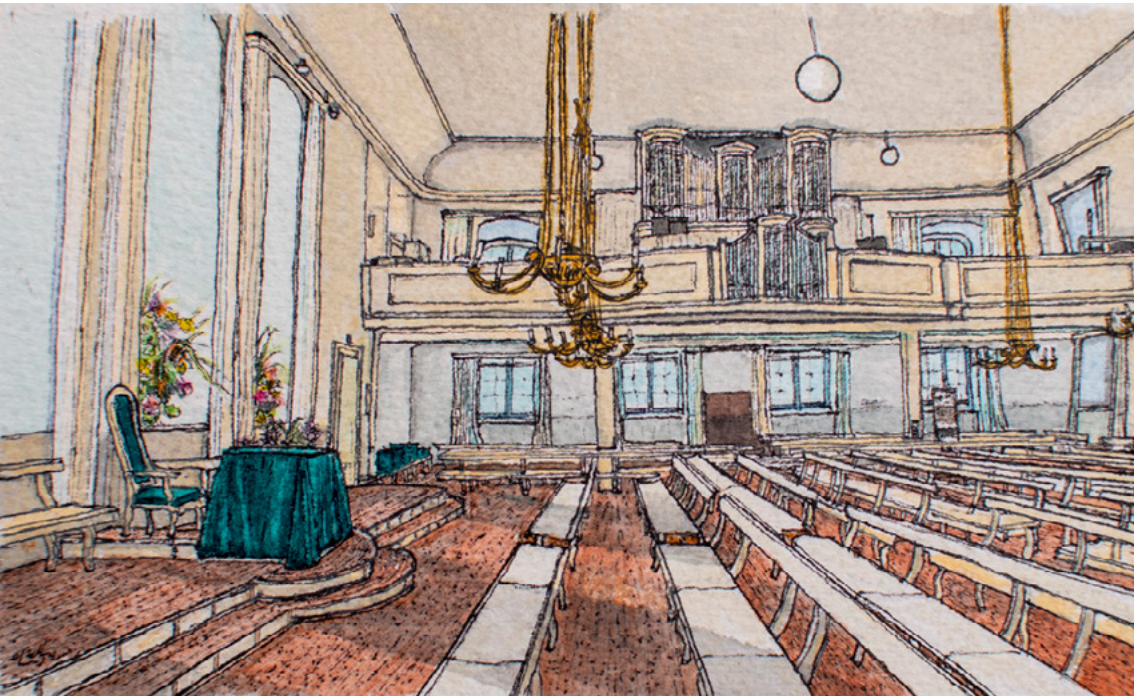


그림 3

이 되었다. 국내에도 2009년부터 로중이 우리말로 번역 소개되고 있다. 로중은 6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어 100개국 이상에 전해져 2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헤른후트 공동체를 떠받치는 또 다른 기둥은 기도이다. 형제단은 1727년부터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 계속 이어 가는 기도 운동을 100년 이상 전개했다. 기도는 다양한 신앙을 가진 헤른후트의 파난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시켰다. 또한 헤른후트를 선교 공동체로 만들었다. 1732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이후 30여 년 동안 카리브해, 아메리카, 아프리카, 북극, 극동 지역 등 세계 각지로 수백 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했다. 친첸도르프 자신도 ‘뿔그림 백작’이라 불리며 서인도제도, 아메리카 등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했다. 헤른후트 공동체는 18세기 개신교 선교 요람이자 본부였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모라비아 형제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 저자의 허락을 받아 <복음과 상황>에 수록된 글과 그림을 게재하였습니다.

가정예배는 가족모임이 아니라 예배시간입니다!

글 신형섭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교수)



교회사, 가정예배를 통한 다음세대의 부흥을 증언하다!

이천 년 교회사는 성경적 명령인 가정예배를 순종하고 실천한 교회와 가정의 현장마다 그 시대 약함과 위기를 뛰어넘어 믿음의 다음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초대 교회, 종교 개혁 시대, 청교도 시대, 한국 선교 초기와 같이 믿음의 전수가 강력히 일어난 시기마다 목회의 중심에는 늘 가정예배에 관한 강조와 구체적인 목양이 있어 왔다.

1. 초대 교회와 종교 개혁 시대, 믿음의 가정마다 거룩한 의례를 명하다!

초대 교회 역사학자인 리만 콜만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가정예배가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드러진 것을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강조한다.¹⁾ 2세기 터툴리안 역시 믿음의 가정이 갖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거룩한 의례를 꼽으며,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예배가 있었다고 기록한다.²⁾

가정예배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순종 사항임에 대한 목회적 지도와 기록은 종교 개혁자들의 목회 서신과 지침을 통하여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정이 야말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가장이 가정 안에서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 존 칼빈 역시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명명하며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유되어지는 언약공동체이기에 가정예배는 믿음의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공적인 책임이라고 말하였다.⁴⁾

2. 청교도 시대, 가정예배를 총회와 교회에서 엄격히 목양하다!

1647년 발행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가정예배 모범에 따르면, 청교도 시대는 총회와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육하고, 목양하였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가정예배 모범은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 사항 안에 가정예배에 대한 교육과 목양을 포함한다.⁵⁾ 이 시대에 가정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김받았다는 것을 가늠하게 한다. 특히 웨스트민

1) Lyman Coleman, *The Antiquities of the Christian Church* (Andover and new york: Gould, Newman&Saxton, 1841), 376-77.

2) Tertullian, *Ad uxorem* ("to my wife") Book II, ch. 8. "Tertullian project," http://www.tertullian.org/works/ad_uxorem.htm [2023.7.17. 접속]

3) Martin Luther, "Lectures on Genesis: Chapters 21-25," *Luther's Works*, ed. Jaroslav Pelikan (Saint Louis, MO: Concordia, 1964), 384.

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2002), 149.

5) Church of Scotland, *The Directory for Family Worship* (Edinburgh: Edinburgh printing and publishing company, 1647), 9-10.

스터 신앙고백서의 서문에는 믿음의 가장들에게 가정예배를 명하는 내용이 적지 않은 분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믿음의 부모에게 큰 도전이 된다.

3. 한국교회 선교 초기, 가정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선언하다!

청교도 시대를 통하여 확인된 성서적, 신학적, 목회적 순종 사항이었던 가정예배에 대한 강조와 실천은 리처드 백스터, 매튜 헨리, J. W. 알렉산더, 찰스 스펔전 등과 같은 신학자, 목회자, 설교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실천되었으며, 한국교회 역시 선교 초기부터 가정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교육목표로 자리잡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1922)은 집안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적 의례로 가정예배를 기록하고 있으며,⁶⁾ 『목사필휴』(1932)도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 전도사와 목사후보자를 세울 때 가정예배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임직시취 질문을 포함한다.⁷⁾ 한국교회에서는 선교 초기부터 가정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세례문답의 질문에는 주일성수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가정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⁸⁾ 1988년에 출간된 『가정예배(365일 말씀자료)』는 변화하는 세대 안에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들이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함을 확인하였다.⁹⁾

이렇듯 가정예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시는 성경적이자 목회적인 핵심 현장이다. 앞에서 언급한 문헌들을 통하여 발견되는 핵심적인 원리 중의 하나는 **“가정예배가 가족모임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가정예배, 가족모임이 아니라 가정예배!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언약공동체로서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에, 사적 모임(private gathering)이 아닌 공동체 예배(communal worship)이다. 가정예배가 공동체 예배라 함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동의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가정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부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가족 모임의 자리가 될 때, 종종 사적 모임으로 변질된다.

6)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 1922), 231.

7) 객안련, 『牧師必携』, (조선예수교장로회, 1932), 102.

8) A. M. Nisbet, Day In and Day Out in Korea (Richmond, VA: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1919), 67-68.

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가정예배 I』(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6.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라”(살전 5:16) 말씀을 읽고 나서 자녀에게 얼굴의 인상을 피라고 지적하는 순간, 이 자리는 가족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아닌 아버지의 지적이 들려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배는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을 형성^{formative}하는 사건도 되지만, 합당하게 드러지지 않을 때에는 도리어 파괴^{deformative}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정예배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닌 가정예배의 시간이라면, 가족 모두가 주목하고 들어야 할 것은 부모님 말씀이 아닌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러한 영적 기준이 선명히 세워지는 자리에서 나누는 가정예배의 말씀은 그 적용의 대상과 방향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지적하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부모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로 새롭게 다가온다. 그렇게 부모 자신의 삶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기대와 결단의 고백을 자녀와 함께 나누는 부모의 고백은, 함께 참여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기록되는 신앙의 유산으로 뿌리내린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글 신현호 (집사)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의 신앙생활

의학에 뜻을 두고 대학에 입학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어느덧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지나온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들도 많지만, 긴장 속에서 그저 바쁘게만 살아온 기억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졸라서 학교에 빨리 가고 싶다고 초등학교에 지원하였으나 나이가 조금 부족하여 우선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안동 교회에 소속된 안동유치원에 2년간 다니게 된 시절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놀이 위주의 시간이 많았고 동요를 배우거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중에서도 '노아의 방주'나 '선악과' 이야기 등도 포함되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특히 뇌리 깊숙이에 자리잡고 가끔씩은 되살려 보곤 하는 숭고한 기억은 성탄절 전날 밤에 촛불을 엄숙한 마음으로 두 손으로 반듯이 들고, 모든 조명을 꺼 둔 캄캄한 교회 예배실 안으로 줄지어 들어가던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집안 벽에 붙어 있던 성경 구절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 을 보면서 누나가 가르쳐 준 곡조로 자주 부른 것도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 시절부터 서울로 유학을 오면서 객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졸업까지 숙소가 여러 번 바뀌게 되었지만 같은 구역 내에서 걸어서 등하교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공부에 치중하느라 교회 생활은 정기적이지 못했지만 신앙적 마음가짐은 나름대로 견지해 왔습니다. 기

독학생회와 대학생 성경읽기회에도 참여하고 학생의 신분이지만 선배들과 함께 의료 봉사도 자주 다닌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10년 이상의 객지 생활에서 오는 피로함이나 계속되는 학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에 힘들어 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 온 흔적을, 최근에 집 정리를 하면서 그 시절 기록한 신앙 일기를 보며 발견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움츠러들거나 나약해지지 말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
주님, 스스로 지혜 있는 체 과시하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
주님, 당신께서 이 인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분별하고
힘써 일할 수 있는 참 지혜를 주시옵소서. 묵묵히 당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글을 보고는 스스로 신앙의 정도가 지난날보다 퇴보한 건 아닌가 혹은 신앙의 성장이 이리 또 늦는가 하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의사로서의 병원과 교회 생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의 생활을 전방 부대의 말단인 대대의 의무지대장으로부터 연대의 의무중대장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긴급한 시대적 상황이 많았던 시절을 긴장감 속에서 보냈습니다. 전역할 무렵에는 수련의 시험 준비를 위한 환경이 비교적 좋았던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인턴 과정을 마치고 여러 많은 과^科 중에서 어느 분야의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를 무척이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과계^{內科系}냐, 외과계^{外科系}냐를 결정하는 것부터 많은 생각이 들었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선천이 가진 내과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은 공부와 진료로 바쁘고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된 후에는 서울시내의 종합병원에 초빙되어 같은 병원에서 30년 이상의 봉직으로서 그리고 여러 의과대학에서 20년 이상의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근무 기간을 보내면서 진료, 교육 연구에 노력한 시절이었습니다. 1982년에서부터는 소망교회에 다니면서 1984년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가족과 함께 정기적인 교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선교부에 입문하면서는 2006년도 라오스 의료 봉사를 시작으로 몽골, 미얀마 의료 선교에도 여러 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료1만 반장으로서 국내 의료 봉사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 교육자로서의 짧은 생각들과 의학 상식

순환기내과 혹은 심장내과 의사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느끼게 되는 여러 생각 중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사항은, 단일 질병에 집중하는 면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환자 전체의 문제를 보면서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과 지식의 연마가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을 중심으로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단상을 조금 정리해 보면, 고혈압 환자에서는 말초 혈관의 높은 압력을 이겨내면서 심장은 계속적으로 하루에 약 10만 번 내외의 박동을 하게 되는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심장 자체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즉,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심장에 계속적으로 불필요하게 많은 운동을 시키게 되어 심장의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고혈압이 아니라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고혈압의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심장 중에도 온몸으로 혈액을 내어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좌심실의 근육이 점차 두꺼워져 소위 '좌심실 비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박동을 담당하는 심장 근육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요구하게 되고, 더 많은 혈액이 심장 근육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혈액량에서 많은 요구를 감당해 내지 못하면 소위 '허혈성 심장질환'이 초래될 여건이 보다 잘 조성됩니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높을수록, 흡연을 하거나 비만할수록 위험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므로 고혈압 환자에서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측정하여 높다고 판명되면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뇨병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철저히 잘 교정하도록 하고, 금연은 반드시 하도록 하고, 과음은 피하고 적절한 운동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싱거운 음식의 섭취와 가급적 소식을 하는 식사 습관으로 체중을 잘 조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에게는 전방위적으로 질병을 이해하고 점검하는 자세와, 환자에게는 건강 생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 건강을 잘 유지하며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 생활도 잘 이루며 조화롭게 사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불완전한 삶에 임하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내어놓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7월 셋째 주

소망장학생 여름수련회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소망장학부'가 7월 8일 토요일 소망교회 본당 제1예배실에서 장학생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말 소망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 지순덕 권사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했다. 부서기 박명용 집사의 대표 기도 후, 장학부 담당 홍성민 목사가 '빛과 소금 같은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바벨론 식민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에스겔을 조명하고, 소망 장학생들 또한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했다. 소망장학부 부장 이범로 장로의 인사 후, 김정진 담임목사가 장학생을 찾아 격려했다. 2부 특강에서는 류현조 목사가 '기독교의 소망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기독교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무관심이라며, 고통받는 이웃과 사회와 연대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를 권면했다. 오후에는 조별로 모여 '고통과 소망'을 주제로 더 깊은 나눔과 통찰을 채워 갔다. 장학생들은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존재로 살 것을 다짐했다. 소망장학생들이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 진정한 도움과 참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음 세대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7월 셋째 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7월 1일 토요일 유치부를 시작으로 2023년 소망교회 교회학교 여름사역의 막이 올랐다. ‘믿음쫓쫓 소망아이’라는 주제 아래 유치 1,2,3부가 연함으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했다. 영유아유치부 부장 양성옥 장로의 지도에 이어 영유아유치팀 교역자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연극 설교와 말씀을 전했다. 아이들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다. 오전에는 빨강, 노랑, 초록, 파랑팀으로 나뉘어 ‘믿음쫓쫓 여권 만들기’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체육, 음악 활동, 약속의 별 만화경 만들기, 순종 카드 게임 등 다양한 학습을 진행했다. 유치부 어린이들은 온종일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뛰놀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여정을 순종으로 걸어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과 활동을 통해 배웠다. 유치부 어린이들은 이날 하루 웃음꽃 가득한 하루를 보냈다. 행사를 준비한 교역자와 교사들은 아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만큼이나 쫓쫓 자라나기를 바랐다. 올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첫 스타트를 끊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몸도 믿음도 쫓쫓 자라나는 소망아이로 자라가길 바란다.



2023 | 08

발 행 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 환

유지미

김영규

홍성민

이순기

편집주간 류현조

편집장 하수경

편집팀 홍성찬

홍희선

디지털콘텐츠 조성실

디자인 워크워크

인쇄 금호인쇄

발행일 2023년 7월 29일(통권 140호)

발행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tpd@naver.com

소망예배안내

예배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30	본당 / 본당 지하1층
주일 예배	주일 1부 오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주일 2부 오전 9: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가족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선교관 2층 / 가족예배실
	주일 4부 오후 1: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주일 5부 오후 3: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찬양 예배	주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방송시간안내

매체	구분	제목	요일	시간
라디오	서울 극동방송	생명은 빛으로	토요일	오전 9:00~9:30
	제주 극동방송	새벽강단	월~토	오전 4:30~5:00
	CBS 기독교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경남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대구 방송	소망의 소리	주일	오전 11:05~11:30
	CBS 기독교 부산 방송	라디오 교회	주일	오전 10:30~11:00
	CBS 기독교 청주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포항 방송	이 기쁜 소식을	화요일	오후 9:05~9:29
TV	CBS 기독교 방송	소망의 말씀	주일	오전 7:50~8:40 (본방)
			수요일	오전 1:00~1:40 (재방)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1:30~2:00 (본방)
			월요일	오전 6:30~7:00 (재방)
	CGN TV	소망교회 주일예배	월요일	오후 9:00~10:00 (본방)
	Good TV	말씀의 샘터	월요일	오후 10:40 (본방)

모바일 헌금 안내

쉽고 안전한 헌금 생활을 위하여 모바일 헌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책, 생기를 불어넣는 벗

소망서점

영업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월요일 휴무)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 주일 오전 8시 ~ 오후 5시

문의 : 02)512-0617, 512-9191(내선 148번)

